

제기 통일부
어린이기자단 기사 모음집
통일 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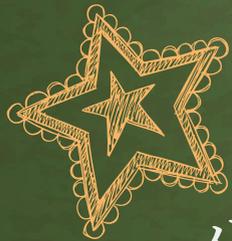
Intro	사진으로 만나는 지난 추억	8
Part. 1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의 활동	
	발대식-이제부터 우리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	20
	제1차 권역별 모임(제주)-「통일한마음캠프」를 취재하다	25
	통일미래 힐링캠프-어린이 기자 판문점 가다!	30
	제2차 권역별 모임(서울)-통일을 맛보다!	36
	제3차 권역별 모임(충주)-통일 멘토와 함께한 가을 소풍	40
Part. 2	통일에 대해 생각하다	
	블로그 인기기사 모음	48
	런던올림픽 기사 모음	78
	통일영화 감상 기사 모음	83
	북한어린이 학교생활 기사 모음	87
	북한관광지 기사 모음	95
Part. 3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나에게 주는 의미	109
Part. 4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세상에 알려지다	139
Part. 5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100인의 각오	146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기사 모음집
통일 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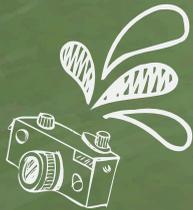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142-715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02-901-7094

발행일 2013년 1월
편집 조선매거진 02-724-6755
인쇄 조광프린트 02-830-3671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블로그 kidnews.unikorea.go.kr
비매품

Intro



사진으로 만나는 지난 추억



어느덧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활동한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5월 발대식 이후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함께 나눴던 추억의 그 시간을 사진을 통해 만나봐요.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활동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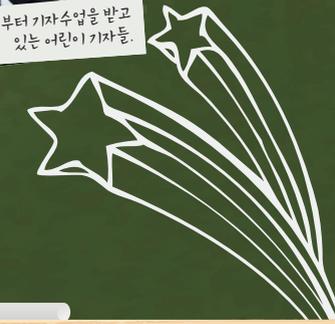
5월 1일
발대식



5월 1일 발대식날, 류우익 통일부 장관님이 기자단 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운영진 선생님께서 기자수업을 받고 있는 어린이 기자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제주 권역 기자들.

6월 19일~20일
제주 권역별 모임



청결한 제3땅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는 기자단.



북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탈북강사 선생님.



제주 권역에서 활동하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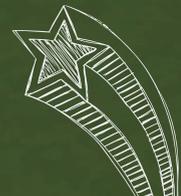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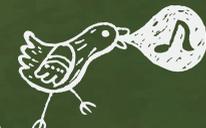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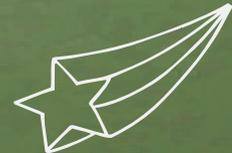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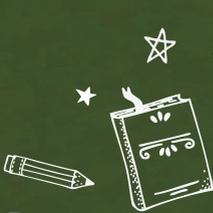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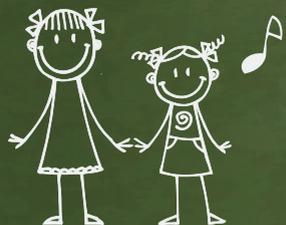
어린이 기자단은 현장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직접 취재도 하고, 영상 촬영 실습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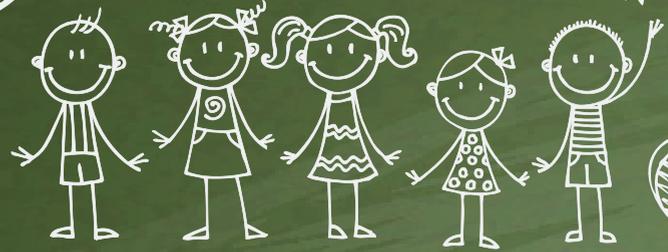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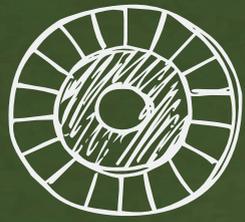


도라전망대앞에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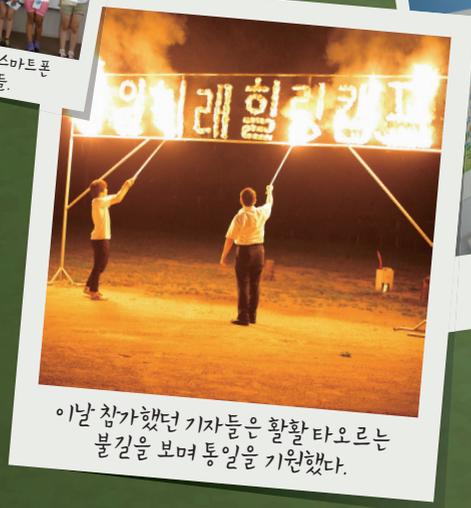
8월 2일~3일
통일미래 힐링캠프

#





동일송을 주제로한 스마트폰 영상제 수상자들.



이날 참가했던 기자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동일을 기원했다.



동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피스럴.



다소 삼엄한 분위기 속의 JSA. 그곳에서의 어린이 기자단 단체 사진 촬영



북한 관련 물품을 볼 수 있는 JSA내 전시관에서 기념촬영.



북한당을 알아볼 수 있는 JSA내 회담장.



10월 6일
제2차 권역별 모임



제권역 기자들이
부환음식을 만들고 있다.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기자들.



북한출신여성박사1호 이애란 선생님께서
두부밥과 혼돈찜 요리법을 알려주셨다.



엄마, 동생과 함께 두부밥을
맛있게 만들었던 유정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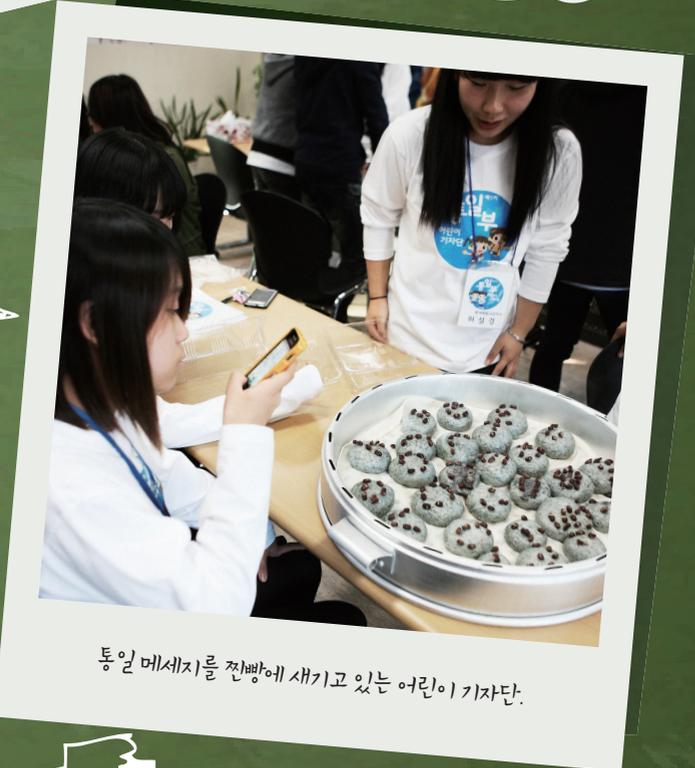


탈북학생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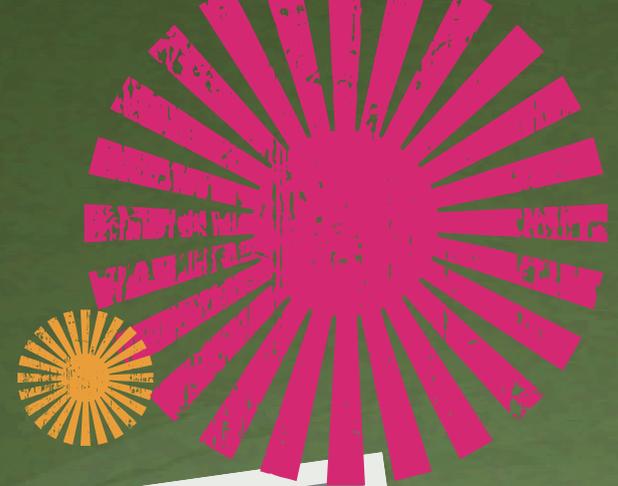
한겨레중고등학교 김용배
선생님께서 북한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11월 10일
제3차 권역별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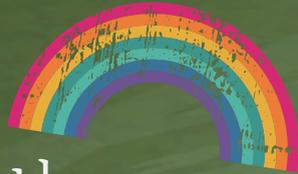
동일 메시지를 전빵에 새기고 있는 어린이 기자단.

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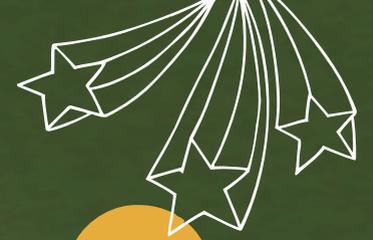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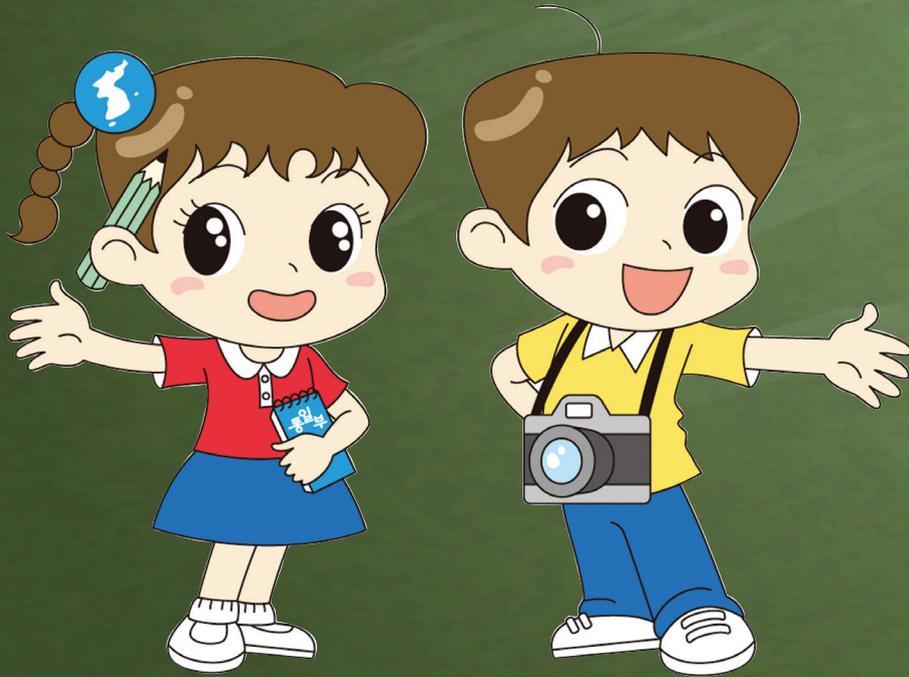




통이와 유니
탄생스토리



★ 통이와 유니,
★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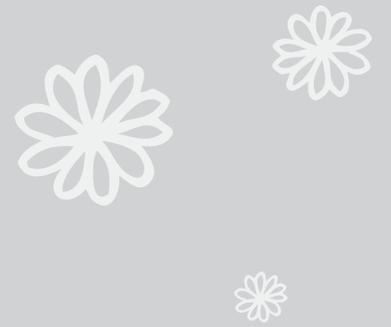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는 100명의 어린이 기자 이외에 2명이 더 있어요. 바로 어린이 기자단의 마스코트 '통이'와 '유니'입니다. 통이는 어린이 기자단 활동 초기부터 마스코트였어요. 1기 출범하기 전, 전문가들이 모여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과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죠.

'통이'는 남자아이로 남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상징하는 여자 친구를 만들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유니'입니다.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펼친 '유니 캐릭터 공모전'에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총 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통일부 통일교육원·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운영진이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해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품위에 맞는 작품, 즉 순수한 창작물이며 통이와 잘 어울릴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구 성도초등학교 윤도희 양이 제출한 캐릭터가 선정됐고,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선생님의 손을 거쳐 지금의 유니로 탄생했습니다.

'통이'와 '유니'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로, 1기는 물론 2기, 3기...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어린이 기자단과 함께할 것입니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의 활동

지난 8개월 동안 발대식, 권역별 모임, 여름 캠프 등에 참여하면서 어린이 기자단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기자단의 활동 내용을 이곳에 참가했던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직접 작성한 후기로 모았다. 그날의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어린이 기자단의 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느껴보자.



[발대식-이제부터 우리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



통일교육원 40주년 기념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드디어 시작!

5월 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통일교육원 40주년 기념식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이 함께 열렸다. 정부기관인 만큼 보안이 잘되어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이곳을 출입한 건 우리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동시에 '이제부터 의미 있는 활동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긴장했다. 강당에 들어가니 리허설이 진행 중이었다.

발대식 예행 연습과 40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모두 끝난 오후 3시, 마침내 기념식 및 발대식이 시작되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님, 조명철 전 통일교육원장님,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님의 인사말과 축사가 끝나고 어린이 기자단의 발대식이 있었다. 어린이 기자단 임명장이 수여되었고 기자 선서식이 이어졌다. 장관님과 기념 촬영도 했다.

수많은 카메라에서 터지는 플래시로 나는 무척 설레었다. 식이 끝나자 가수 신형원, <슈퍼스타K> 출신 김지수, 소프라노와 테너의 앙상블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멀리서 기차를 타고 오는 길은 힘들었지만 즐거운 추억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2부에서는 영화 <코리아> 시사회가 있었다. 배우 하지원, 배두나, 박철민, 문현성 감독, 현정화 탁구감독이 무대인사를 위해 참석했다. 어린이 기자단과 부모님 그리고 그 외 관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환호성을 치는 모두의 손에는 휴대전화나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짧은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는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 <코리아>는 남북한 탁구 단일팀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일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려고 건넌던 외국 물품, 외국 감독이 우연히 건넌 명함 등 월남 의도로 보일 수 있는 물건들이 적발되어 경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공든 탑이 그대로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남한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팀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경기에 임한다. 그 결과 좋은 성적으로 준결승에 골인. 우여곡절 끝에 결승전까지 진출하고, 마침내 남북한이 힘을 합쳐 중국을 꺾고 우승하게 된다.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상관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고, 나는 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영화를 보면서 감동도 느꼈다. 짜릿함과 환호성이 나도 모르게 마음 속에서 터져 나왔다.

“파이팅, 통일! 파이팅,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기자소양체험학교에서는 기자단 선생님과 상생기자단 4기 최수지 기자가 통일부 기자단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행사장에는 기자증과 기자단 전용 티셔츠, 위촉장이 놓여 있었다. 기자증과 위촉장을 보니 정말 기자가 된 것만 같았다.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

먼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팀장님께서 어린이 기자단에게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주셨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100명은 전국 초등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런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다른 학생들보다 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학교 수업과는 다르게 통일에 대해 달리 생각해보는 기회를 접할 수 있어요.”

이어 최수지 선배 기자(동국대 북한학과)가 어린이 기자단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번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최수지 기자는 “천진난만한 감동을 선사할 첫 강의”라며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덕분에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알게 모르게 가졌던 부담감을 좀 털어낼 수 있었다.

이후 기자 인증샷을 촬영하고, 권역별 선생님과 인사를 나눈 다음 첫 과제를 받았다. 권역별 모임은 세 팀으로 나뉘었다. 서울·경기·인천 모임의 이름은 ‘통일미래꿈’, 대전·충남 등은 ‘그린한반도’, 경남·부산 등은 ‘유니와 통이다. 내가 속한 팀은 ‘그린한반도’다. 선생님은 “기사를 쓸 때는 육하원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서 써야 한다”고 하셨다. “사람의 파스한 감성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하셨다. 기자단 활동을 처음 하는 어린 기자인 나에게는 기사 쓰는 것에 대한 이 조언이 무척 인상 깊었다. 옆에 앉은 친구들과 함께 그날의 과제도 받았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파이팅!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허인서(대전 송강초등학교 6학년)

통일을 알리는 어린이 기자단... “자랑스럽다”

지난 5월 1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가지며 첫 문을 열었다. 나는 천안 대표로 그곳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짐작이라도 한 듯 상생기자단 최수지 선배 기자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선배들의 활동이 담긴 영상과 슬라이드를 보고 나니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각 조 담당 선생님들도 우리에게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그래서인지 오래 지나지 않아 내가 통일부 기자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서 언젠가는 통일된 한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그날 우리 어린이 기자단은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배우고 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도 고민하게 되었다. 통일에 한 걸음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친구들 도외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만났던 친구들과 함께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중앙청사에 갔다. 처음 가봤기에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우리나라의 행정을 관리하는 정부청사를 직접 보니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이 건물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더 많아질까? 그만큼 우리나라도 더 강한 나라, 발전한 나라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발대식을 마치고는 영화 <코리아>를 봤다. 영화는 탁구 남북 단일팀에 관한 내용이다. 보는 내내 ‘정말 통일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발대식에 다녀온 후 생각이 많아졌다. 비록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우선 다른 친구들을 대표해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은 '통일'이라는 말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내가 앞장 서서 친구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모두가 힘을 모아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좋은 나라, 강한 나라가 되는 데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통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모두가 통일을 소망하며 노력하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내가 큰일을 하고 온 것처럼 뿌듯하고 기뻐다. 앞으로 나는 통일부 기자단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다른 친구들에게 통일을 알리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강현주(천안 수곡초등학교 6학년)



[제1차 권역별 모임(제주) -통일한마음캠프를 취재하다]

2012년 6월 19일 제주 한화리조트.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첫 번째 권역 모임은 바로 내가 사는 제주도에서 열렸다. 친구들과 얼굴을 처음 마주하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행사가 열린 세미나실에서 전소라 선생님, 윤정선 선생님, 김정원 선생님, 김만화 선생님, 임나영 선생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또 현장 특파원으로 함께 활동할 오상우, 고영균, 한상민, 정민수 기자도 보았다. 앞으로 2일 동안 같이 지내게 될 선생님들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친구들을 보니 기대감이 넘쳤다.

오전에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활동과 통일 한마음 캠프의 프로그램 소개가 있었다. 기자단에 대해 완벽히 알지 못했지만 이날 선생님들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윤정선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은 인상 깊었다. 이날 선생님께서는 TV 프로그램 <힐링캠프>를 보여주셨다. 이 프로그램에는 법륜 스님이 나와 북한에선 수년간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설명했다. 굶어 죽는 북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도 슬펐다.

모든 워크숍이 끝난 뒤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 한마음 캠프가 열리는 강당으로 이동했다. 현장 특파원으로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 한마음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팀을 만들었다. 팀별로 웃놀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친구가 된 느낌



통일 골든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장기를 선보이며 활약했다. 저녁때는 각 조가 마인드맵을 그린 뒤 통일과 관련된 단어를 주제로 연극을 하기도 했다. 정말 재미있는 발표였다.

2012년 6월 20일 제2일차

아침이 되자 우리들은 어제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대강당에 모여 북한 친구들이 하는 체조, 일명 ‘업간체조’로 몸을 풀었다. 점심식사 후 캠프에서 친해지게 된 제주 삼성초등학교 강예리 어린이와 함께 인터뷰도 진행했다. 서로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 예리에게 통일 한마음 캠프에 참여한 소감을 물었다. 내가 특별히 예리를 인터뷰한 이유는 캠프에 대해 느꼈던 소감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예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 즉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며 “통일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정말 기쁘고, 통일이라는 단어랑 친구가 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제주 권역 모임을 통해 캠프에도 참여하고 현장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취재하는 방법과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또 예전보다 통일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북한이라는 곳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제주도까지 직접 찾아 주신 선생님들, 이곳 제주 지역 친구들과의 특별한 만남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서고은(서귀포 동홍초등학교 6학년)



많은 선생님과 기자단 친구들과의 만남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제주도 권역별 모임의 첫 번째 날. 권역별 모임이 열리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탔다. 그곳에는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도착한 곳은 한화리조트. 행사가 있는 곳에서 나는 많은 선생님들과 기자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잠시 후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윤정선 선생님께서는 직접 준비하신 파워포인트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해주셨다. 장면에는 북한 아이들이 굶주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영상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분단의 흔적이 이런 아픔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다. 또 임나영 선생님께서 영상 취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는 서귀중앙초등학교 6학년 김준석 형을 인터뷰했다. 취재를 직접 해보니 기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통일 한마음 캠프에 참여했다. 나는 ‘현장 특파원’이란 자격으로 활동했다. 그곳에서 아라초등학교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강건규, 재요한, 오소진, 한혜민, 현예원 그리고 나는 1조로 한 팀이 되었다. 통일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었고, 팀별로 무대에 나가 직접 연극도 펼쳤다. 긴 일정을 마치고 형들과 깊은 잠에 빠졌다. 피곤했지만 즐거운 하루였다.

다음 날, 우리는 모두 대강당에 모여 북한의 업간체조를 했다. 처음에는 뻗뻗했던 몸이 하다 보니 긴장이 풀려 유연해졌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우리 기자단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취재한 활동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공감했다. 이번 권역별 모임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어서 좋았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오상우(서귀포 서귀북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자부심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제주 권역별 모임 첫날. 모두 긴장된 마음으로 행사가 열리는 세미나실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운영진 선생님들과 어린이 기자단의 부모님도 있었다. 나는 전소라 선생님, 윤정선 선생님, 김정원 선생님, 김만화 선생님, 임나영 선생님과 함께 차례로 인사를 나눴다. 또 서고은 기자, 오상우 기자, 고영균 기자, 정민수 기자와 자기소개 시간도 가졌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설렘이 커져 갔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선생님들의 안내를 주의 깊게 들었다. 이어서 윤정선 선생님이 어린이 기자단을 위해 준비하신 영상을 보았다. 거기에는 법륜 스님이 출연했다. 법륜 스님은 북한에서 매년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북한이 굶주림에 빠져 있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워크숍이 끝나고 우리는 오전부터 진행되었던 통일 한마음 캠프에 합류하였다. 이날 캠프에서 기자단은 분명 할 일이 있었다.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과 인터뷰도 했다. 서고은 기자는 영상을 통해 제주 권역 모임의 현장을 전국 기자단에게 실시간으로 알렸다. 행사가 끝난 뒤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숙소에서 꿀맛 같은 잠을 청했다.

2일차 2012년 6월 20일

기상! 캠프 참가자들이 대강당에 모여 신나게 체조를 했다. 열심히 몸을 풀 뒤 우리들은 통일 토크쇼에 참여했다. 통일 토크쇼는 팀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뒤 단상에 나가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가 끝나면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친구들이 반박을 할 수도 있었다. 토크쇼가 끝난 뒤 우리 기자단은 옥외에 다시 모여 미션을 받았다. 캠프에서 친해진 친구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통일 한마음 캠프를 통하여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인터뷰에 응한 친구는 “통일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우리는 캠프에 참여한 친구들과 함께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제주 권역별 모임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단지 통일에 대해서가 아니다.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통일 문제에 대해 고민도 하고 글과 영상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평소 낯설기만 했던 북한의 말과 환경, 자원, 북한의 정책 등도 깊이 알 수 있었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 발탁된 만큼 다른 친구들보다 한발 더 빨리

통일에 대해 생각할 뿐 아니라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기로 다짐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한상민(제주 남광초등학교 6학년)

<통일미래 힐링캠프 -어린이 기자 판문점 가다!>

통일미래 힐링캠프: 현장 체험



8월 2~3일 1박2일간 '통일미래 힐링캠프'가 파주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 모인 34명의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분단의 상징과 통일의 희망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일찍부터 열차를 타고 나섰다. 서울로 달려가는 기차 안에서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었다. 또 '부산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인데, 통일이 된다면 평양을 지나 신의주까지 달려간다면 어떨까'라는 희망도 꿈꿨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제3땅굴. 이곳은 1978년 10월 17일 우리 군에 의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2만여 명이 1시간 만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크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더욱 놀랐다. 땅굴을 보며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대치하며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다음으로 도라산전망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DMZ라는 곳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게 참 색다른 느낌이었다. 이곳에서 개성시와 송악산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갈 수 없는 마을이었다. 그 안에 서로 마주하고 있는 태극기와 인공기를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견학 장소는 바로 휴전 협정 체결지인 판문점이었다. 판문점은 다른 말로 JSA(Joint Security Area)라고도 한다.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는 북한군을 보았다. 또 마네킹처럼 굳은 채로 경호를 서고 있는 헌병 아저씨들도 만났다.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 회의를 열렸던 곳으로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또 이곳에는 실제 많은 사건도 벌어졌다. 그중 가슴 아팠던 사건은 바로 1976년 8월 18일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부근에서 일어난 도끼만행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3초소 앞 미루나무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유엔군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을 하면서 시작된다. 미군은 이 작업을 위해 북측에도 사전 통보를 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미국 장교 2명이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은 북측의 사과로 종결되었다. 고작 20m 정도만 가면 북한인데, 그 앞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픔이 느껴졌다. 나는 이번 통일미래 힐링캠프에 참여하면서 통일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며, 통일은 우리의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공동 취재 김민준(대구 옥수초 5학년), 우림(부산 남천초 6학년), 최림(인천 하점초 6학년), 문예진(울산 서부초 6학년)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

지난 8월 2일과 3일 이틀간 우리 가족은 '통일미래 힐링캠프'에 다녀왔다. 연일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새로운 곳을 향하는 우리 가족의 눈은 반짝, 설레는 마음을 안고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아빠가 내내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 아빠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다는 이 노래는 북한과 우리가 분단에 가로막혀 오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다. 노래를 통해 아빠 세대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통일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또 우리가 왜 이 캠프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듯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은 탈북자 선생님이 들려주신 북한의 실상이었다. 그동안 자료나 교육을 통해서 북한의 생활이 어떤 것이라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탈북을 한 선생님의 이야기는 몇 백 배 더 실감이 났다. 나를 포함해 엄마, 아빠도 또 그곳에 참석한 다른 친구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평소 귀한 줄 모르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북한의 친구들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넉넉하게 가진 것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가졌다. 그렇게 첫날 일정은 나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해주었다. 학생과 부모님들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시끌벅적 재미도 있었고 우리 기자단끼리 나누는 이야기도 그랬지만 어른들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는 것이 또 다른 공부가 되었다.

1박 2일의 행사가 끝난 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했다. 통일부 기자단 활동을 통해 직접 북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글을 쓰고 견학을 하다 보니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통일에 대해, 나라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먼저 통일의 절실함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친구들에게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몫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강현주(천안 수곡초등학교 6학년)

통일미래 힐링캠프를 마치고

8월 2~3일(1박 2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특별한 시간 '통일미래 힐링캠프'에 참석하였다.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견학하면서 조국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 어렵지도 무겁지도 않게 생생하게 느끼고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미리 계획된 일정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아빠와 함께 KTX를 타고 달려갔다. 도착한 곳에는 5월 1일 발대식 이후 카페에서만 만났던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볼 수 있었다.

연수원에 도착하고 통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둘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분명히 즐겁고 재미있었지만 가슴 한편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이전에도 학교에서 탈북자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좀 달랐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조차도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통일기원의 밤 '스마트폰 영상제'에서는 어린이 기자단이 직접 만든 '통일송'이 울려 퍼졌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한 '통일송'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랐다. 실제 영상을 만들었던 나는 이 시간을 통해 제작했던 과정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어색함을 누그러뜨렸다. 서로의 생각을 듣는 순간 통일에 대한 소망도 조금씩

커져갔다.

이번 캠프를 통해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지, 통일 미래를 왜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의지와 마음가짐을 다지는 데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돌아오는 길, 1박 2일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은 쉽지 않았다.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느새 많이 자라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 캠프에서 경험했던 생생한 느낌을 적어 학급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반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냉장고에 잘 보관되어 있는 북한 과자는 아끼고 아껴서 친한 친구들에게 조금씩 맛보게 해줄 생각이다.

통일에 대한 바른 생각과 관심을 갖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 기자단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속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도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향아리의 일부가 아닐까. 이번 캠프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소속감이 강해졌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류하빈(대전 글꽃초등학교 5학년)

분단의 아픔은 나누고 기자들의 친목은 더하고

2012년 8월 2일부터 3일까지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학생들 40명가량이 비무장지대로 힐링캠프를 떠났다. 이번 캠프는 기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며 분단국가의 아픈 현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일정으로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를 둘러본 후 홍원연수원에 도착했다. 우리 기자단은 '통일과 친해지기', '탈북강사 강의', '스마트폰 영상제' 등의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소화해냈다. 탈북강사 박진희 선생님이 직접 북한의 실상을 들려주기도 했고, 친구들이 직접 부른 통일송을 감상하기도 했다. 식사 후 레크레이션이 펼쳐졌다. 선생님의 진행으로 아이들이 무대에 나가 신나는 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활동이 끝난 뒤 캠프파이어가 이어졌다. 통일미래 힐링캠프라는 문구가 어둠을 밝혔다. 우리는 등근 원을 만들고 이 시간을 즐기며 환호했다. 피곤에 지치긴 했지만 이미 친해진 우리 기자들은 같은 방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둘째 날, 아침 체조를 마치고 판문점과 경기영어마을을 견학했다. 판문점은 남북 휴전회담이 열렸던 장소로서 주변에는 포로 교환을 했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한 측 초소 '자유의 집', 북한 측 초소 '판문각' 등이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총부리를 겨누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통일 준비를 위해 우리 어린이 기자단은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을 둘러보며 통일의 절실함과 분단국가의 아픔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 어린이 기자는 "남북이 같은 겨레가 되어서 몇 km 되지 않는 거리에 서로 다른 국기를 놓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통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했다. 다른 기자는 "서로 정말 많이 친해지는 좋은 계기였다"며 힐링캠프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탈북민 2만 7000명 모두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공동체이다. 통일미래의 주역인 우리들이 탈북민들을 좀 더 따뜻하게 맞이하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김서현(인천 소재초등학교 6학년)



[제2차 권역별 모임(서울)] -통일을 맛보다!

의외로 친절한 북한 음식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북한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을 찾았다. 처음 맛보는 북한의 음식인 만큼 북한 음식에 대한 내 마음은 거부감이 컸다. 하지만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닫혀 있던 마음이 변했다.

이번 행사는 통일과 좀 더 가까워지는 방법 중 하나로 '음식'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에 북한 음식은 가난한 나라에서 만들어져 재료도 좋지 않아 맛도 없고, 또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를 것 같아서 마음 속에서 북한 음식을 은근슬쩍 밀어놓았다. 이런 편견을 가졌던 북한 음식, 하지만 막상 만나본 'food made in north korea'는 친절했다. 너무 다르게만 생각했던 북한의 음식은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였다. 이날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음식은 두부밥과 혼돈짬이었다. 처음 접하는 음식이지만 전혀 낯설지 않고, 그 맛도 우리 입맛에 잘 맞았다. 점심때 함께 먹은 녹두지짐이나 순대 역시 너무나 맛있었다.

북한의 음식은 결코 우리나라의 음식과 비교해 뒤쳐지지 않는 맛이였다. 비록 지금은 갈라져 있는 문화, 갈라져 있는 맛이지만, 통일의 기초는 가장 가까운 음식부터 통일하는 것이라 느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오은지(서울 공릉초등학교 6학년)

지난 10월 6일 참여한 권역별 모임 & 기자소양체험 행사에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특히 다양한 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 더욱 특별했다. 이날 우리는 직접 만든

두부밥, 혼돈짬 이외에도 순대, 평양냉면, 온밥, 녹두지짐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는데, 특히 해주비빔밥이 기억에 남는다. 해주비빔밥은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비빔밥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과연 어떤 음식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빔밥은 고추장이 많이 들어 있어 매운맛이 강하다. 다른 재료와 비교해 고추장 맛이 비빔밥의 맛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해주라는 곳에서 만들어 먹는 비빔밥은 고추장이 듬뿍 들어 있는 남한의 비빔밥과는 다르다.

우선 해주비빔밥은 닭고기, 돼지고기, 콩나물, 미나리, 버섯, 도라지, 김 등을 얹어 양념간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우리가 먹어 온 비빔밥과 가장 큰 차이는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간장으로 간을 해 원재료의 맛을 더욱 잘 느끼게 해주는 것이 특징. 고추장에 가려져 그 맛을 잘 느끼지 못했던 나물의 다양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하나의 음식이 아닌 여러 가지의 음식을 먹는 듯한 느낌까지 준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해주비빔밥을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통일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나물이 하나의 그릇에 모여 멋진 맛을 만들어 내듯, 우리 민족도 남과 북이 '통일'이라는 그릇에 모여 멋진 나라를 만드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유정민(서울 동일초등학교 6학년)



새로운 경험, 성숙해진 우리



지난 10월 6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서울 종로3가에 위치한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에서 권역별 모임 및 소양 체험을 하였다. 이날 행사의 주요 내용은 '북한 음식 직접 만들기'와 '기사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였다.

이번 행사는 10시 30분부터 시작했다. 1부 순서로 진행된 '북한요리체험'은 기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본격적인 요리를 만들기 앞서 이애란 교수님이 북한 친구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보여주셨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음식은 두부밥과 혼돈찜이었다. 두부밥은 북한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거리 음식으로, 먹고살기 위해 팔기 시작한 음식이라고 한다. 혼돈찜은 만두 종류 중 하나로 모양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북한 연회 때 꼭 올라가는 음식이라고 한다. 북한의 가난한 음식과 부유한 음식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많은 기자들은 "북한 음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새롭다. 특히 맛이 너무나 궁금하다"며 기대에 찬 목소리였다.

2시간가량 어설뜨게나마 직접 만든 북한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조금은 싱겁게 느껴질 정도로 담백한 맛이였다.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만든 음식이라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이렇게 실습을 마치고 2부는 '기사 잘 쓰는 방법'이라는 강의명으로 조선매거진 이일섭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사를 쓰면서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는지, 어떻게 제목을 뽑아야 하는지 잘 몰랐던 부분을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설명해주셨다. 앞으로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기자로서 더욱 성숙해졌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최림(인천 하점초등학교 6학년)





[제3차 권역별 모임(충주) -통일 멘토와 함께한 가을 소풍]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 통일부 어린이 기재단 최예원입니다. 이번 권역별 모임이 충주에서 열린다고 해서 참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한겨레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과 함께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주저없이 참가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 또래 친구들이 오는 줄 알았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어색하기도 하고,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겨레중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북한 동요를 함께 부르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노래를 불러주신 설경 언니의 목소리는 정말 킁킁리 같았어요.

권역별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는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와 많이 다르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말투도 다를 것이고 북한에서 오래 살다가 넘어온 터라 생각도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우리와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았어요. 꽃감을 만들 때 칼질이 서툴러 속도가 느렸는데 옆에서 너무나 예쁜 모양으로 껍질을 깎아 꽃감 만드는 것도 도와주시고, 찐빵 만들 때도 친언니처럼 잘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번 권역별 모임을 통해 북한 언니, 오빠를 만나고 나니 북한에 있는 또래 친구도 하루빨리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까지 같으면 아마 북한 친구들은 만나자마자 금방 친해지고 마음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저에게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요. 바로 ‘북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번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친언니, 친오빠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재단 최예원(경기 하안남초등학교 6학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만의 특별한 추억”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 임명된 후 발대식을 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란 생각에 11월 권역별 모임은 꼭 참석하고 싶었다. 특히 충주에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카페에 공지가 올라오는 날부터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다. 이번 행사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뿐 아니라 특별한 손님이 함께한다고 해서 더욱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책이나 방송을 통해 북한 사람들을 본 적은 많지만, 사실 직접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었다. 물론 한겨레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도 엄연히 우리와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북한에서 살다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곳감 만들기 체험에 앞서 한겨레중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학교에 대한 소개와 북한 동요를 알려주셨다. 그곳에서 힐끔힐끔 언니, 오빠들을 보며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전혀 다른 점이 없었다. 심지어 언니들은 너무나 예쁘고 노래도 잘했고, 오빠들은 외모가 너무 뛰어났다. 진짜 언니, 오빠를 삼고 싶을 정도로 한겨레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과 금세 친숙해졌다.

하지만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해 평소 북한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해 좀 아쉬웠다. 다음에는 1박 2일 정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과 한겨레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과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한한나(충북 수봉초등학교 6학년)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 안녕~! 이렇게 좋은 기회로 친구들을 만나게 돼 너무 기뻐한다.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이라고 해서 마냥 어린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답게, 북한에 대한 상식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통일’을 모두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낯설어하고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곤 해. 그래서 사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친구들이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 하지만 너무나 편안하게 다가와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겨레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마음이 좋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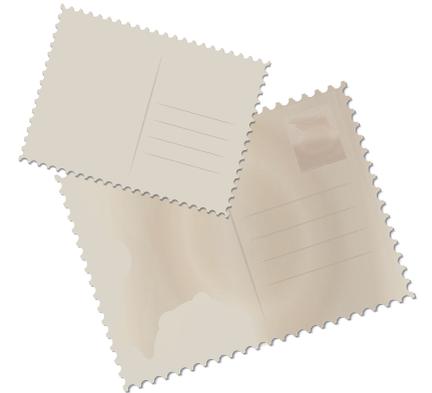


우리가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해 온 것은 바로 한 민족이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한', '북한'을 나누어 생각하는데,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 대해, 그리고 어린이 기자단은 한겨레중고등학교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지. 이렇게 서로에 대해 하나 둘씩 알아가다 보면 분명 남한과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기자단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친숙해지길 기대해볼게.

이번 행사에서는 서로 서먹서먹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밝은 미소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내렴.

한예은(안성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





Part. 2

통일에 대해 생각하다

지난 8개월 동안 어린이 기자단은 매달 두 번씩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통일’ ‘북한’을 주제로 한 기사를 쓰면서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점차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게재된 수많은 기사 중 조회 수, 댓글 수, 스크랩 수가 많았던
기사부터 과제별 대표 기사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인기 기사 모음>

통일 후 우리나라의 모습

지금은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룬 지 10년이 지났다. 내 나이는 30살이다. 지금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OO그룹에 다니고 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룬 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통일한국 10년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일한국은 우선 옛날 우리 고구려가 이루었던 영토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있다. 최소한 한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1억 명이라는 인구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어지간한 국내 기업들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제품을 팔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5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삼성, LG, 현대 등의 국내 대기업들은 모두 세계 10대 기업들에 포함되어 세계적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통일한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애플과 소니 등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이 되었다. 남한만 따로 국가대표를 운영할 때에는 세계 10위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통일한국은 훌륭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육성하여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세계 5위의 강국이다. 통일한국은 FIFA 월드컵을 개최하여 2002년 월드컵에서 이루었던 세계 4강을 다시 한 번 재현하여 한반도가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전 세계가 통일한국의 열정과 결집력과 단결력을 보면서, 통일한국은 이미 세계의 리더가 되었다는 기사를 전송하고 있다.

북한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많다.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그리고 높고 깊은 골을 가진 산들이 수없이 많다. 통일한국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대규모 리조트와 레저스포츠를 위한 시설들을 갖추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관광 수입은 통일한국의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겨울 스포츠가 발달하여 동남아인들은 한국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하나의 로망이 되었다. 나도 등산을 좋아해서 북한 지역의 많은 산들을 올라보니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통일한국은 통일되기 이전에 쏟았던 국방예산을 사회복지예산에 투입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갖춘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3위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한국은 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지금 우주산업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 뒤처져 있던 우주로의 꿈을 위해 새로운 비행물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로켓 발사 형태가 아닌 무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비행기에 타는 것처럼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선이다. 가히 혁명적인 아이템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능력은 우리 통일한국만의 가장 뛰어난 장점이다.

무엇보다 나에게겐 반가운 현상이 하나 더 있다. 통일한국의 모든 문화가 세계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음악, 문학, 영화, 선비사상 등이 세계에서 새로이 각광받고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5명이나 배출되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도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한글이 이젠 당당히 국제어가 된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도 힘들었던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 한글을 배우고 있다. 굳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으며, 국제회의에서 영어로 말하지 않고 한글로 말해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대학에 한글학과가 설치되어 한글은 명실상부한 국제어가 되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이 통일한국을 서로의 파트너로 삼고자 우리와의 외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UN에서도 상임이사국이 되어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통일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발전국가가 되어 세계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안혜인(서울 통일초등학교 5학년)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멋진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저는 지금 세계의 관심 속에 하나로 통일된 대한민국의 옛 판문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어 아름답고 찬란하게 자리한 이곳은 우리 민족이 그동안 어떤 아픈 역사를 지나왔고, 그래서 더더욱 발전된 나라로 걸어가야 할 목적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서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는 몹시도 가슴이 벅차고 자랑스롭습니다.

하지만 통일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시작되고 1953년 정전이 된 후 멀고도 긴 분단의 시간은 우리 민족을 전혀 다른 성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이해타산과 욕심에 휩쓸려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눌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 된 통일 조국을 만들기 위해 정말 우리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가슴 벅찬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 경제, 교육, 문화를 하나로 이끌어내기에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한민족’이라는 큰 이름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하고 또 배려하면서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과 열정 앞에서 많은 장애물은 그냥 장애물일 뿐 어떤 방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서로 노력하는 모습은 많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남쪽 땅 끝부터 북한의 곳곳까지 연결된 도로와 철도는 그동안 헤어져 있던 사람을 실어 나르고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물자를 실어 나르며 힘차게 발전된 한국의 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서 세계 다섯 손가락 안의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소비되기만 했던 군사력에 쏟아 부었던 힘을 사회, 교육, 경제 쪽으로 돌리다 보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던 젊은이들은 그 힘으로 공부에 투자하여 진정 나라를 이끌어갈 인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과학, 수학, 음악, 체육 등 어느 한 분야 뒤떨어지는 것 없이 세계의 맨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남쪽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에 투자되고 묶여 있던 북한 땅이 개발되어 아름답고 힘찬 산업도시, 휴양도시로 발달되어 세계의 관광 자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국 곳곳을 취재하는 기자는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차오를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에 설마설마 하던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이런 놀라운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제는 자기 나라의 젊은 인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 그 모든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의 기적입니다. 세계 지도상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서로 분단되어 각국의 경계 대상이고 기피 대상이었던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입니다. 모두 하나로 마음을 모은 남과 북의 우리 국민이 이루어낸 일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끈기 있는 우리 민족성은 아직 만족을 모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마음을 모아 힘을 합쳐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는 멋지고 당당한 세계 최고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결코 게을러지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통일의 깃발을 꽂았던 그 하나 된 마음으로 더더욱 노력하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두가 앞장 설 것이라는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강현주(천안 수곡초등학교 6학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중략)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오랜 역사와 빛나는 문화유산을 간직한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간절한 소망인 민족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가슴 벅찬 감동은 없을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슬픈 상황을 벗어나는 그날에는 어떤 멋진 일들이 생기고, 통일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설렌다. 평화적인 통일이 된 후 남과 북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기를 쓰게 되지 않을까?

통일 후 6월의 어느 날.

오늘은 KTX를 타고 평양에 계신 고모부 댁에 놀러가기로 한 날이다. 지난달 평양시청에 다니시는 고모부와 결혼을 하신 고모가 집들이에 초대하셨기 때문이다. 평양광역시에 기차를 타고 가려니 기분이 묘하고 들뜬다. 고모네 집들이를 마치고 내일은 평양에 새로 완공된 서울평양월드컵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류스타 콘서트를 구경하고 원조 평양냉면을 맛있게 먹은 후 시내 구경을 하고 싶다. 다가오는 25일에 예정된 ‘통일축제’ 준비가 한창인 화려한 장식의 평양 시내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번 역사탐험 때 다녀왔던 고구려의 평양성 대동문과 단군릉에도 가족들과 함께 가서 고구려의 힘찬 기운을 느끼고 와야겠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여름엔 북쪽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유행이다. 특히 개마고원 지방의 감자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개성의 인삼축제와 함께 여름 관광지로 인기가 높다. 난 감자를 제일 좋아하고, 엄마께서는 인삼을 좋아하신다.

통일이 되어 남과 북에 펼쳐진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여행 상품 개발로 평화롭고 여유로운 관광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가는 곳마다 우수한 우리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고,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된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정말 행복하다.

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백두에서 한라까지 배낭여행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세계의 친구들에게 자랑해야겠다.

기분 좋은 상상, 지금은 비록 분단된 상황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쓰일 우리의 이야기이다. 우리들의 바람대로 평화와 자유를 기초로 하여 민족통일이 되는 날에는 우리 국토 남쪽의 넉넉한 식량 자원과 북쪽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조화로운 생활 터전을 회복하고, 해묵은 이산가족의 아픔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국제사회의 마찰에서 영향력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출되던 막대한 물적·인적 자원이 민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되고, 반도 국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회복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의 중심이 되어 안정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기대된다.

찬란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해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름을 조금씩 좁혀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불신과 적대감을 줄이고, 통일 이후의 혼란과 불안의 걱정보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함께하는 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올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의 멋진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류하빈(대전 글꽃초등학교 5학년)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항아리

통일항아리란?
옛날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부엌에 항아리를 하나 두고
훗날을 대비하여 쌀, 돈을 조금씩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빌린 것이 '통일항아리'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크고, 통일이 되면 많은 편익이 발생하지만, 통일 과정에 돈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올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통일 시기에 필요한 돈을 지금부터 준비해두자는 것이 통일항아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항아리는 화분입니다. 우리는 통일항아리를 정부 출연금, 또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채워나가다 보면 우리의 성금은 통일항아리의 거름, 물, 영양분이 되고, 통일항아리는 마치 통일이란 씨앗이 심어져 있는 화분처럼 우리가 주는 거름, 물, 영양분(자발적인 성금)을 먹고 통일이란 싹을 틔워 우리의 성금을 먹고 마침내 커다란 통일이란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는 통일항아리는 화분입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통일항아리는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우리가 통일항아리에 10원, 100원씩 어린이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금을 내어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한다면 티끌 같은 성금들이 모여 태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항아리는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아빠가 생각하는 통일항아리는 63빌딩입니다. 한 층 한 층이 쌓여 63층의 어마어마한 높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한 푼 한 푼 모이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쌓이게 되어 미래의 통일을 크고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항아리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유정민(서울 통일초등학교 6학년)



주먹 싸움이 아닌 보자기 악수

우리나라의 숙제인 통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평화통일에 대하여 주변의 친구들과 선생님, 가족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았다. 먼저 친구들이 생각하는 평화통일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은주 기자 해주야, 너는 진정한 평화통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하혜주(13) 음..., 진정한 평화통일이란 서로 안심할 수 있고 행복한 통일이라고 생각해. 무력을 앞세워 통일을 한다면 서로를 믿을 수 없어 결국 또 갈라질 수 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

은주 기자 혜진아, 너는 평화통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김혜진(13) 평화통일? 그건 남한과 북한 어느 한쪽이라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평한 통일이라고 생각해. 불공평하게 통일을 한다면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 평화통일은 양팔 저울 같은 거야. 어느 한쪽이라도 더 무겁거나 가벼우면 미끄러져 내리니까.

두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니 친구들도 평화통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다음으로 사촌 언니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은주 기자 언니! 평화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우수정(27) 서로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해서 양국의 국민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체제 아래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 같아!

이야기를 조금 어렵게 해서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천천히 해석을 해보니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다음으로 엄마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신은주(부산 을숙도초등학교 6학년)

은주 기자 엄마, 평화통일이 뭐라고 생각해?

박종숙(38) 통일은 마음으로 하는 통일이야. 마음이 맞아야 통일도 할 수 있고 영토·마음의 통일뿐만 아니라 문화적 통일, 사회적 통일 그리고 언어의 통일도 이루어야겠지? 두 나라가 거의 반세기 동안 갈라져 있으면서 사회와 문화, 언어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잖아. 어서 빨리 통일을 하지 않는다면 통일을 해야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다른 점도 너무 많아져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릴 거야.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나니 통일은 하루빨리 해야 할 임무인 것 같다. 다음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통일의 의미를 여쭙어보았다.

은주 기자 선생님! 평화통일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최향옥(40대) 그래? 평화통일이란 주먹 싸움이 아닌 보자기 악수야. 주먹 싸움은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이고, 보자기 악수는 대화와 타협을 뜻하는 거지.

선생님께서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을 주먹과 보자기에 빗대어 표현해주시니까 이해도 더 잘 되고 인상 깊게 남았다. 통일은 우리 손으로 이루는 것이니까 주먹과 보자기도 맞는 말인 것 같다. 다음은 고모께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을 여쭙어보았다.

은주 기자 고모~ 고모는 평화통일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미자(53) 평화통일이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단어야.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많은 도움을 주는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시행하셨어. 평화통일도 이 햇볕정책처럼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 것 같아. 지금은 천안함 사건처럼 남과 북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평화통일은 희망을 주는 단어인 것 같구나.

고모의 말씀을 들으니 예전부터 평화통일은 햇볕처럼 따스한 단어인 것 같다. 평화통일은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모두 나이도 다르고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통일의 의미도 달랐지만 결국 모두 평화 통일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서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이 따뜻한 햇살을 받아 땀을 평화와 화합의 열매를 기대해본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신은주(부산 을숙도초등학교 6학년)



도라산역에 다녀와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북한으로 갈까? 통일이 되면 유라시아를 여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유라시아 횡단철도까지 자동차로 가기는 좀 피곤하고, 또 비행기는 비쌀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하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의선을 이용하여 북한을 통과하여 여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도라산역에 대해 아시는 분~? 경의선 복원사업에 대해 아시는 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경의선과 연결된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역! 도라산역에 대해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다!

도라산역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리산리 555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남방한계선과 700m 떨어진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라산역에서 북한과 남한과의 거리로 본다면 평양과는 205km 떨어져 있고, 서울과는 56km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본다면 북한의 개성은 20분이면 갈 수 있고, 평양은 두 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라산역은 어떤 철도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경의선입니다.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서울과 신의주까지 연결된 철도입니다. 여기서 경의선에 대해 잠깐 알아보시다. 경의선은 서울~신의주 간을 연결하는 철도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용해 대륙 침략과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1906년 개통된 이후 6·25 전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경의선은 중국 대륙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서로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려고 각축을 벌였던 대표적인 노선입니다. 철도 부설권이 프랑스, 독일을 거쳐 대한제국 정부에 돌아왔다가 다시 일본의 군사 철도로 이용된 것입니다. 철도 부설권을 빼앗은 일본은 군인 및 군용물자 수송을 신속히 하기 위해 공사를 급속도로 진행했고, 이에 따라 1905년 3월 대동강 철교가 준공됐으며, 1906년 난공사 지역인 청천강 철교가 준공됨으로써

용산~신의주의 전 구간에 걸쳐 열차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부선과 경의선의 남북 종단 철도는 1911년에 압록강철교가 완공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철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의선 열차의 운행 구간이 만주의 안동까지 연장됐으며, 서울 남대문과 만주의 장춘을 주 3회씩 직통 특급열차를 운행했습니다. 경의철도는 남으로는 부산과 시모노세키 사이의 관부 연락 항로를 통해 일본 내의 여러 철로와도 연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부-경의철도는 일본-한국-만주-중국 대륙을 이어주는 교통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경의선은 1951년 6월 12일에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북한과의 남북정상회담의 제1차 남북 장관급 회의에서 끊어진 경의선을 연결한다는 내용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의선 복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에 남북정상회담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끊어진 경의선 복원사업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도라산역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어 2003년에 기념식이 열렸고 4년간의 공사로 드디어 2007년 5월 17일 남북철도연결구간(문산-개성) 열차 시험 운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2월 11일부터 개통되었습니다. 화물열차는 주중 매일 1회 운행되었으나, 남북 관계가 다시 냉각되자 2008년 12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재개 여부는 남북 관계의 진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남북 관계가 회복된다면 경의선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신의주와 서울이 철도로 연결되고, 이 복원된 철도를 이용하여 유라시아 횡단철도로 관광사업과 물류사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어 이 경의선 복원사업은 우리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허인서(대전 송강초등학교 6학년)

TIP
도라산역에
가는 법



역의 사용과 함께 남북출입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관광 목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서 그런지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쉽게 띵니다. 다른 역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평양 방면 타는 곳은 출입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도라산역 가는 방법은요? 이 도라산역은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민통선 안에 들어가려면 꼭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도라산역에 가는 첫 번째 방법 기차를 이용해서 역을 방문하고 싶다면 통근열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근열차의 정차역은 문산역(경의선)→ 임진강역→ 도라산역입니다. 역에서 다른 역으로 이동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라산역으로 들어가려면 임진강역에서 잠시 정차해서 신분 확인 후 도라산역으로 갑니다.

두 번째 방법 임진각에서 시간마다 있는 버스를 타고 안보 연계 관광으로 민통선 내에 있는 도라전망대, 제3땅굴, 통일촌을 도라산역과 함께 연계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인데요. 그 이유는 임진각과 파주 평화누리공원을 둘러보다가 시간에 맞추어 연계 관광을 한다면 편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파주 평화누리공원은 바람개비와 넓은 들판이 있어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또 북의 군인이 남으로 침입하려던 흔적이 남아 있는 제3땅굴과 날씨가 좋을 때 저 멀리 보이는 개성공단을 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를 함께 연계 관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역사가
담겨 있는 판문점

소개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나도 그 영화가 보고 싶어서 컴퓨터로 찾아보았다. 영화를 보고 나니 판문점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이곳을 소개하는 것이 통일에 대한 안내가 되겠다 싶기도 했다.

판문점... 난 이번 과제를 받은 후 어떤 것에 대해 소개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 그때 엄마께서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면서 판문점에 대한

‘판문점.’
이 말을 찾아보니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에 있어 주로 회담이 개최되는 건물을 포함한 그 주변의 장소’라고 되어 있다. 6·25전쟁 때 1951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유엔군과 공산군 간에 휴전회담이 열렸던 곳이기도 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은 이 널빤지 다리를 판문교라고 불렀는데 <개성군면지>에 의하면 판문교는 개성 쪽에서 널문리를 지난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6·25전쟁 직전 널문리는 경기도 서북쪽의 장단군 진서면 선적리와 개풍군 봉동면 침송리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다.

그러나 휴전회담이 이곳에서 진행되면서부터 갑자기 국제적인 이목을 끌게 되었다. 하지만 6·25전쟁 휴전협상이 처음부터 이곳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 휴전회담 예비 회담은 1951년 7월 8일 개성 북쪽에 위치한 내봉장에서 개최되었다.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회담 장소 주변에서 북한군의 의도적으로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회담 장소의 중립성이 문제가 되자 국제연합국 측은 1951년 9월 6일 회담 장소 이전을 공산 측에 제의하였다.

북한 측이 1951년 10월 7일 새로운 회담 장소로 널문리 주막마을을 제의하자 국제연합 측이 그 다음 날 이에 동의함으로써 회담 장소가 개성에서 널문리 마을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곳에서 조인되면서 이곳 명칭은 UN 측과 북한 측의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결정되었다. 같은 해 8월부터 9월 초까지의 포로교환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판문점 서쪽 사천내에 놓여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옛 이름:널문다리)' 부근에는 1976년 8월 18일 북한 경비군에 의한 도끼만행사건의 발단이 된 미루나무가 서 있다.

판문점의 위치는 서울 서북쪽 48km, 개성 동쪽 10km, 평양 남방 약 180km, 북위 37°57'20", 동경 126°40'40" 지점 부근, 긴 지름 1km, 짧은 지름 800m인 타원형 구역이며, 한북관에 휴전선이 있다.

6·25전쟁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선적리와 개풍군 봉동면 발송리 사이에 걸쳐 있다. 최초의 판문점 회담 장소는 도로변에 초가집 4채가 있던 널문이라는 고장이었으며,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휴전회담을 하였다. 판문점이라는 이름은 널문이라는 고장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곳에서 휴전회담이 끝나게 되자 휴전협정 조인을 위하여 약 200평의 목조 건물(북한은 '평화의 전당'이라고 함)을 마을 부근에 세웠는데, 이곳이 두 번째의 판문점 회담 장소이며, 협정 조인 이후 지금의 위치로 옮긴 것이 세 번째의 장소이다. 최초의 장소인 널문 마을과 두 번째 장소인 '평화의 전당'은 지금의 판문점 회담장에서 북쪽으로 약 800m 북한측 비무장지대에 있다.

지금의 회담 장소도 처음에는 천막으로 시작되었으나 휴전이 점차 장기화됨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과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비롯한 부속 건물들이 항구적인 건물로 바뀌게 되고, '자유의 집'(1965)과 '판문각'(1968) 등 콘크리트 건물도 세우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남북대화의 빈도가 잦아지자 '평화의 집'(남쪽)과 '통일각'(북쪽) 등 남북대화용 건물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결국 냉전 대결의 산물인 군사정전위원회와 화해와 교류 협력을 위한 남북대화가 공존하는 지역이 되었다.

사실 이곳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저 평범한 농촌 지역으로 역사적인 장소가 될 이유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면서 중요한 지명으로 남게 되었는데 외국의 국가 원수들도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이곳에 들러 우리나라의 안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간다고 한다. 그만큼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을 잘 말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난 이번에 '판문점'에 대한 자료를 모으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영화 <공동경비구역JSA>였다. 모두가 평화롭고 사이좋게 함께할 수도 있는 공간인데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으로 버티고 있는 곳이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화합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생겼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강현주(천안 수곡초등학교 6학년)



강지은의 통일 소개서

판문점을 소개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1기 강지은입니다. 먼저 이번 5차 과제를 준비하게 되면서 많은 지식을 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통일 소개서의 장소는 우리가 곧 가볼 판문점입니다. 판문점은 ‘통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만한 장소이며, 우리가 곧 찾아갈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제를 과감히 ‘판문점’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그 자리에서 지켜온 판문점... 우리가 어서 통일이 되어 북한 땅, 남한 땅을 자유롭게 밟을 수 있을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판문점은 어디에 있을까?

판문점의 위치는 서울 서북쪽 48km, 개성 동쪽 10km, 평양 남방 약 180km, 북위 37°57'20", 동경 126°40'40" 지점 부근에 있으며, 긴 지름 1km, 짧은 지름 800m인 타원형 구역으로 한북관에 휴전선이 있습니다.

판문점이란 무엇일까?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곳은 6·25전쟁 때 1951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유엔군과 공산군 간에 휴전회담이 열렸던 곳인 판문점입니다. 판문점의 과거를 살짝 살펴보면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지역이 개성부 판문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 부근에 널문다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설과 이 마을에 널빤지로 만든 대문 널문이 많았기 때문에 ‘널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휴전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되면서 세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휴전협상이 처음부터 판문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래는 개성 북쪽에 위치한 내봉장에서 개최되었지만, 진행되는 동안 내봉장 근처에서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무력시위를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양측의 동의를 받은 후

1951년 10월 7일 새로운 회담 장소가 널문리 마을로 옮겨졌다고 해요.

이처럼 판문점을 유명하게 만든 휴전회담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휴전회담 총 765회에 이르는 각종 회의를 거쳐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한국(조선)군사정전 협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휴전협정에 조인하게 되었죠.

지금의 회담 장소도 처음에는 천막으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휴전이 점차 길어져서 회의실을 비롯한 부속 건물들이 항구적인 건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유집’(1965)과 ‘판문각’(1968) 등 콘크리트 건물도 세우게 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 남북대화가 잦아지자 ‘평화의 집’(남쪽)과 ‘통일각’(북쪽) 등 남북대화용 건물도 만들게 되었답니다.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는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했어요. 1976년 8월 18일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나뭇가지 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군 소속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국군과 미군 병사 9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지요. 사건 발생 후 주한 미군 사령부는 전투 준비 태세 명령을 내렸으며, 오키나와 등지의 전폭기 대대 및 해병대를 한국에 급파하고 항공모함 레인저호와 미드웨이호를 한국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강경한 대응 태세를 취했어요. 한미 양국의 강경한 태도에 북한의 김일성은 8월 21일 유엔군 사령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통일의 상징이 될 ‘판문점’

휴전선 내 위치하고 있는 판문점은 통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통일의 장소이다. 판문점은 1953년 휴전 협상이 체결된 곳으로 현재는 ‘평화의 집’, ‘통일각’으로 불리기도 한다. 판문점은 지금도 남북한의 대화의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판문점은 현재 유일하게 남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다.



한국이 통일한국이 된다면 여러 장소들이 통일의 장소가 될 것인데, 그중 판문점은 통일된 독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처럼 통일의 상징이 될 것이다. 다른 어느 통일 장소보다 더 활발하게 남북한의 대화와 소통을 이어주었고, 통일을 도운 장소라고 볼 수 있기에 '판문점'은 통일한국의 상징이 될 것이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강지은(창원 웅남초등학교 6학년)

답은 풀 다른 영화 〈적과의 동침〉과 〈웰컴 투 동막골〉

한국전쟁(6·25)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영화이고 순박함을 잃지 않은 시골 마을이 주 무대이다. 그동안 적대하며 만났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며, 궁극적으로 전쟁의 무의미성을 말해주는 휴먼 코미디 드라마적인 느낌이 참 비슷하다. 포스터만 봐도 너무 비슷해서 〈적과의 동침〉은 〈웰컴 투 동막골〉의 아류작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웰컴 투 동막골〉은 6·25전쟁을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적과의 동침〉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웰컴 투 동막골〉은 전쟁을 하고 있던 군인들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도 모르고 깊은 산속에서 만나 이념을 떠나 진실한 교감을 나누었던 이야기라면, 〈적과의 동침〉은 반대로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마을에 갑자기 들이닥친 전쟁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와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희생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그리고 있다. 또 〈적과의 동침〉은 〈웰컴 투 동막골〉에서 그리지 않은 사랑이야기도 더해진다. 후반부에 주인공 정웅(김주혁)과 설희(정려원)가 서로를 위해 진실을 감추고 희생하는 장면 그리고 남북으로 나뉜 분단 현실에 끝내 함께할 수 없는 비극을 그려 전쟁으로 파괴된 슬픈 인연 이야기를 다루었다.

남북 관련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군인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져 처음엔 싸우더라도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함께 살기 위해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참 아쉽다. 〈적과의 동침〉은 매우 감동적이고 전쟁의 아픔이 잘 들어나 있으며, 변희봉, 유해진의 연기, 즉 조연들의 활약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중간 부분이 조금 따분하고 컴퓨터 그래픽이 좀 별로인 것 같았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웰컴 투 동막골〉과 흡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다.

〈웰컴 투 동막골〉은 엄청 신나고 재밌었고 실제로는 죽음을 기다리지만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주인공들의 아이같은 표정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만 다소 연기력이 아쉬웠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들이다.

그 시대에 살아보지 못한 것을 영화로라도 접해 이해하며 통일을 기다리는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고영수(파주 문산초등학교 6학년)





통일을 기원하며

수학여행을 통일과 관련된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제3땅굴 등에 다녀와 기사를 써보려고 한다. 벌써 3차 과제를 쓰고 있다니 참 뿌듯하다. 3차 과제의 주제에 따라 오늘은 독립기념관에 다녀온 후기를 기사로 작성해보려고 한다.

독립기념관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230번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들이 독립기념관 야영장도 많이 찾고 있는 곳이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하다 보니 하나 하나 섬세하게 살펴보고, 시간이 부족한 탓에 1~7관까지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난 들어갈 때부터 설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행복했다. 친구들과 구경하는 것도 좋았지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펼쳐진 파란 하늘 아래 휘날리는 수백 개의 태극기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비록 통일이 되지 않아 많은 것들이 불편하겠지만 나는 이런 곳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많이 알아가는 게 하루빨리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곳인 것 같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준 독립운동가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이 찡해왔다.

제일 눈물이 날 것만 같았던 곳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알듯이 운동가 분들이 고문을 받는 장면들... 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프게 해야 했나? 아무 죄 없는 한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도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운동가 분들은 어떻게 고통을 참아내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온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돌아가신 운동가 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또 언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지배당할 수도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작은 대한민국, 거기다 반으로 나뉜 남한과 북한, 하루빨리 통일을 하여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며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기사를 쓰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배를 당한 35년의 시간을 버틴 우리 민족. 아직 잊지 못할 아픔이 남아 있지만 통일이 된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 통일을 위해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립기념관을 다녀 온 후기를 쓰니 가장 마음이 아파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3차 과제를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김민주(경주 양북초등학교 6학년)

통일이 된다면 남한, 북한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제일 첫 번째로 이산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산가족 신청자만 10만이 넘는다. 그 정도로 남한, 북한에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이 많다. 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만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산가족, 전쟁 탓에 남한, 북한으로 서로 갈라진 가족들. 통일이 된다면 이런 이산가족이 모두 만나 행복하게 잘 살겠지.

통일이 된 남한, 북한

두 번째는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다. 북한의 땅 중 80% 이상이 땅 밑에 자원이 묻혀 있다. 남한은 기술은 좋으나 자원이 많이 없고, 북한은 자원은 많으나 기술이 별로 없으니 이 둘이 만난다면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빼앗아가고 있다. 하루빨리 통일해서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

세 번째는 국방비이다. 남한은 지금 국방비만 어마어마하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그만큼 군대에 들어가는 국방비가 많다. 통일이 된다면 유일한 전쟁 상대인 북한이 아군이 되기 때문에 수천 억에서 최대 수천 조까지 들어가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

네 번째는 수출, 여행이다. 우리는 북한 땅을 밟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려면 배를 타고 빙 돌아가거나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야 한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돌아가지 않고 바로 북한 땅을 밟아서 빠르고 많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행! 통일이 된다면 서울에서 여러 나라를 육지를 이용해서 갈 수 있다. 무엇보다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에 있는 여러 곳에 관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여행이 편리해지고 갈 곳이 많아진다. 또 우리가 밟을 수 없는 비무장지대는 평화공원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땅에 대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땅이 작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한반도를 또 반으로 가르니 남한과 북한은 땅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통일이 된다면 지금보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을 하면 좋은 점,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펴보았다. 추가로 더 이야기 하자면 2013년부터 통일을 하면 2050년쯤에는 우리가 일본,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8위로 올라가는 일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 학생들이 한국, 일본, 미국을 적대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통일이 되면 이것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은 수없이 많다. 다 적기에 너무 많아 5가지만 간추려서 적은 것이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싶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하지후(서울 공릉초등학교 5학년)



남북 사이의 두레박

“초동군은 상수리 련못으로 올리달렸어. 그러자 건상에서 은병이 사르시 내려왔지. 초동군은 서둘러 은병에 올라탔어. 그리고 건상으로 올리갔어.”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중 일부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전래동화와 조금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말로 바꾸어 쓴 <선녀와 나무꾼>이기 때문이다. ‘초동군’은 나무꾼, ‘상수리’는 산꼭대기, ‘련못’은 연못, ‘건상’은 하늘, ‘은병’은 두레박의 북한말이다. 그리고 ‘사르시’는 살며시, ‘올리가다’는 올라가다, ‘올리달리다’는 오르막길 등을 달려간다는 뜻의 북한말이다.

“나무꾼은 산꼭대기 연못으로 달려갔어. 그러자 하늘에서 두레박이 살며시 내려왔지. 나무꾼은 서둘러 두레박에 올라탔어. 그리고 하늘로 올리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한말’로 쓴 전래동화이다. 분명 같은 내용이지만 차이가 있다. 남한말과 북한말은 어떻게 다를까?

북한말의 특이한 점은 한자어,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로, 드레스를 나리웃으로, 로션을 살결물로, 피망은 사자고추로 바꾸어 쓰는 것처럼 고유어가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런데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단어들도 있다. 품무나(공동 집단), 그루빠(그룹), 프락포르(트랙터) 등이 있다.

북한말 중에는 남한의 말과 의미가 다른 낱말들도 많이 있다. ‘아가씨’는 봉건사상이 담긴 부정적 의미이다. ‘빨치산’은 혁명적 영웅이라는 뜻이다. ‘아버이’는

김일성, ‘예술’은 예술과 기술과 수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소행’은 칭찬할 만한 행동이라는 뜻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북한의 사회 체제나 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남한에는 없는 말들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는 붉은 청년 근위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 속도전 등이 있다. 북한은 표준어를 문화어라고 하는데, 평안도 지역이나 함경도 지역의 사투리가 문화어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망돌(맷돌), 부루(부추), 아즈럽다(애처롭다), 게사니(거위), 인차(곤) 등이 있다.

남한과 북한의 말은 같은 듯 다른 것 같다. 그런데 분단되기 전까지는 같은 말을 썼을 텐데 왜 달라진 것일까?

첫째로, 많은 세월 동안 서로간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자유로이 만나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몸이 멀어지면 마음과 행동이 서로 달라지듯이 언어도 달라진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사회체제도 언어가 달라지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북한에서는 외국과의 교류를 단절했기 때문에 북한만의 고유어가 발달되었다. 하지만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남한에서는 외래어나 신조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남한은 언어 정책이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두음법칙을 인정하지만 북한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붙여 쓰기가 더 많이 인정되는 등 맞춤법이나 언어법이 다르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선녀와 나무꾼과 같이 남북한의 언어도 하늘과 땅처럼 차이점이 많다. 지금 남북의 관계도 하늘과 땅처럼 가깝지만 멀고, 쉽게 오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이대로 계속 멀어지다 보면 지금은 조금 알 것 같기도 한 서로의 언어가 완전히 다른,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녀와 나무꾼>에서도 선녀와 나무꾼은 나무꾼의 실수로 헤어졌지만 나무꾼이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를 만날 수 있었다. 헤어져 있지만,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언어’라는 장벽쯤은 쉽게 허물 수 있다. 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올라가는 두레박으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신은주(부산 을숙도초등학교 6학년)

혜숙 누나에게

며칠 전 우연히 우리 식구들 모두 텔레비전을 통해 누나를 알게 되었어. 누나의 탈북 과정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식구들 모두 눈물의 저녁 시간이었어. 가슴이 너무 아팠어. 참 나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12살 장용탁이라고 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야. 나에게도 누나가 있는데 13살 6학년이야. 우리 가족은 북한하고 가까운 파주 문산에 살고 있어. 옛날에는 북한 사람들이 임진강을 건너와 막걸리를 먹고 갈 정도였다고 할아버지들께서 말씀해주셨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가까운 곳에 살며 따뜻한 집에서 엄마가 챙겨 주시는 맛있고 따뜻한 밥을 먹고 사는 나는 그리 멀지 않은 휴전선 이북 북한에 살고 있는 내 또래 아이들에 비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누나의 동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가슴 뭉클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런 누나에 비해 지금 나는 어떤가 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우리 가족은 정말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아끼고 위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혜숙 누나, 누나의 부모님은 다시 뵙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곁에서 따뜻한 집에 살며 따뜻하고 맛있는 밥도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면서 빨리 정착하길 바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동생과 북한에서 힘들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어.

누나,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는데 누나는 중학교를 다니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거야. 누나 동생은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동생을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훌륭한 누나가 있어서 든든하겠다. 누나 동생이 좀 부럽다. 사실 우리 남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 엄마께 혼나거든. 그런데 이제 싸우지 않을 거야.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이 많았어. 누나와 동생이 잘 사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다시 보고 싶어.

굵는 날이 많고 5시간을 걸어서 국수를 얻어 가지고 와 한 끼를 먹고 강을 건너려다 죽을 뻔하고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눈물로 살았던 누나의 시간이 나중에는 소중한 인생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야. 누나, 힘내. 화이팅!!!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장용탁(파주 문산초등학교 5학년)

<런던 올림픽 기사 모음>



서로 경쟁해야 할 한겨레

2012년 런던 올림픽이 7월 28일에 개막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금메달 9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로 세계에서 중국, 미국, 영국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화 <코리아>처럼 우리나라와 북한 선수들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연습한다면 올림픽에서 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코치들과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북한 또한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좋은 환경과 뛰어난 시설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경제 성장도 뒤쳐져 있는데 올림픽 세계 8위이고 GDP 대비 올림픽 금메달 개수가 세계 1위인 만큼 스포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통일한국이 되면 우리나라의 기술, 환경과 북한의 잠재적 스포츠 능력을 곁들여 세계 종합 1위를 노리는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꼭 한반도기를 가슴에 걸고 통일이 되어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눈물을 흘리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통일한국의 선수들을 볼 날이 머지않았으면 좋겠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김서현(인천 소재초등학교 6학년)

뜨거운 8월의 지구촌에서는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 올림픽이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조국의 명예를 위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경기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들을 겨루고 있다. 많은 나라들 속에 유난히 빛나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으로서 당당히 이름을 떨치고,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런던 하늘에 애국가를 울리며 자랑스런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다. 올림픽 초반의 오심 논란 속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멋진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 모습에 폭염도 주눅 들고 밤잠도 도망을 치는 듯하다.

올림픽의 대세,
코리아!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은 물론 북한 선수들의 선전에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어 한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듯해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 북한의 첫 금메달 주인공 안금애 선수는 이웃집 이모 같은 편안한 모습이었고, 역도에서 금메달을 딴 엄윤철, 김은국 선수의 활발하고 명랑한 모습이 기분 좋고 인상적이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축구선수인 정대세 선수를 통해 북한 운동선수들의 열악한 환경을 전해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감동을 주고 대단해 보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북한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올림픽에는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경기를 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통일미래 힐링캠프에 다녀오면서 판문점 일대를 처음으로 체험하고, 실감나는 분단 상황과 긴장감을 직접 느끼고 온 다음 날인 지난 토요일(4일), 남북한의 첫 대결로 탁구 남자 단체전 경기를 보게 되었다. 영화 <코리아>에서 봤었던 남북의 동시 입장이나 단일팀은 아니지만 경기를 하면서도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남은 경기에서 북한 선수들의 선전을 바라며, 통일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가능하면 남북한 선수들끼리 대결하는 경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스포츠는 애국심을 끌어내는 훌륭한 수단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민족에겐 통일을 이끌어낼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남북의 긴장감을 줄이고 서로에게 대화의 문을 여는 데 스포츠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스포츠 교류는 더욱더 남과 북을 가까이 해줄 것이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거리를 좁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희망의 열쇠가 되리라 기대를 한다. 스포츠에서라도 남북이 서로의 비법이나 장점을 알려주고 단점을 보완하며, 전지훈련도 같이 하고 필요한 운동기구 같은 것을 지원해주며 진심으로 서로의 발전을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세계의 중심에 선 '스포츠 강국 코리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여 가까운 통일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기분 좋은 예감에 벌써 마음이 설렌다. 작지만 강한 나라, 곧 하나가 되어 더욱 강해질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우주까지 자랑하고 싶다. 이미 서로 응원하며 서로 소통하는 스포츠처럼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가 함께 태극기를 휘날릴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이번 올림픽의 대세는 역시 코리아였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류하빈(대전 글꽃초등학교 5학년)



세계가 놀란 두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두 나라 한국과 북한

2012년 7월 28일에 개막해 8월 13일에 폐막하는 2012 런던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그중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나라가 있다. 바로 남한과 북한이다.

우리는 세계지도를 보면 아주 조그마한 나라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좋은 지리적 위치와 '한강의 기적'이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비록 작지만 큰 나라이다. 왜냐하면 세계인의 축제 런던 올림픽의 세계에서 눈에 띄는 성적 4위(금 9개, 은 2개, 동 5개)와 8위(금 5개, 은- 동 1개)의 성적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4위와 8위는 한겨레인 남한과 북한이다. 나는 이번 올림픽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통일한국이란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릴까? 우리가 만약 통일한국이란 이름으로 런던 올림픽에 출사표를 던졌다면 성적 3위(금 14개, 은 2개, 동 6개)로 세계 여러 나라에 통일한국이라는 이름을 알렸을 것이다.

즉, 우리는 펜싱, 수영, 사격, 역도 등 다방면에서 실력이 뛰어난 나라 통일 한국이 될 것이다. 우리 한국과 북한은 조상, 문화, 언어, 피부색이 같은 한민족인데 고작 38선이라는 선 하나 때문에 294명의 우리 선수들을 같이 응원하지 못하고 금메달의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한다. 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다.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계기를 계속 만들고, 스포츠 교류를 통해 남북 마찰을 줄이고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한국의 몇몇 여론은 말한다.

스포츠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스포츠는 통일을 향한 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이러한 이유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통일 올림픽이 되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평화에 직접 기여하는 계기로 만들고 통일에 기반이 되는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의 발언 이외 남북 협력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1991년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이다. 이때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여자 복식 금메달을 하나 얻어 양쪽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감동을 선물하였다. 우리는 이렇듯 스포츠 교류를 이용해 남북 마찰을 줄여 평화, 자주적 통일을 해야 한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최림(인천 하점초등학교 6학년)

대한이의 통일 바로 알기

지난 2012년 7월 28일, 2012 하계올림픽이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축구,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막강한 상대인 영국을 제치고 4강 진출.
 양궁, 대한민국의 주종목으로서 당당히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 획득. 대한민국 전체 금메달 중 3분의 1이 양궁으로 인한 금메달.
 그리고 북한,
 여자 역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를 압도하고 총 금메달 4개 중 3개를 역도에서 획득하여 놀라움을 멈출 수 없다.
 그럼, 북한과 남한이 통일하여 하나 된 대한민국을 이루면?
 금메달 1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로 세계 3위 기록. 배드민턴, 펜싱, 양궁, 역도, 사격 등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체육 강대국 육성.
 하나 된 대한민국은 분단된 대한민국보다 행복합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조버리(곡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통일영화 감상 기사 모음>

통일 국가와 세계 속의 유일한 분단국가



사람들에게 ‘소박하지만 빛나는 명작’, ‘진지함과 경쾌함 사이의 살얼음을 걷는 듯한 영화’ 등으로 평을 받은 영화 <굿바이 레닌>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굿바이 레닌>은 독일의 통일영화로, 2003년 10월 24일에 제작되었고 감독은 ‘볼프강 벡커’입니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단국가’로 우리나라는 남과 북 사이에 철조망이 있지만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있었습니다. 영화감독 볼프강 벡커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그 당시 분단의 현실을 슬퍼하며 그 현실의 슬픔을 심장마비에 걸린 어머니가 있는 동독 가족에 빚대었고, 한편으로는 독일의 통일 후의 모습을 그 당시 슬픔과 함께 영화로 나타내었습니다. 통일이 된 후의 독일은 사회주의 동독의 문화가 사라지고, 거의 모든 문화가 자본주의 서독의 문화로 바뀝니다. 서독의 코카콜라가



동쪽 독일의 땅에도 들어오는가 하면 화폐도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화폐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통일이 된 독일의 모습을 보며 만약 통일이 된다면 사회주의인 북한의 문화는 거의 남한의 자본주의 문화로 바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화를 보면 현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듯,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현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았습니다. 독일도 분단국가였고, 분단국가였을 때도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로 나뉘어 있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독일은 통일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독일처럼 철조망을 무너뜨리고, 평화적인 통일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오은지(서울 공릉초등학교 6학년)

크로싱

얼마 전 엄마와 함께 TV에서 방송되는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11살 북한 소년이다.

북한의 탄광촌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당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노동당 당원이지만, 소년의 가정 형편은 우리가 교과서나 TV 속에서 많이 보아오던 현재 북한의 처참한 실상 그대로 지독히 가난할 뿐이었다.

동생을 임신한 엄마는 폐결핵에 걸리게 되고, 아버지는 엄마의 치료약을 구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게 된다. 아버지가 구하러 간 치료약은

대한민국에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약이었지만, 아버지는 중국에서 고된 벌목 일을 해서 돈을 벌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붙잡혀 벌어들인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돈이 필요한 아버지는 ‘인터뷰에 응하면 돈을 준다’는 말에 남한으로 탈북을 하게 된다. 결국 소년의 엄마는 아버지를 기다리지 못한 채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소년은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 떠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된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소년은 탈출을 감행하게 된다. 남한에 도착한 아버지는 브로커를 통해 소년의 행방을 알게 되고, 아들을 위해 마중을 가지만 소년은 몽골의 사막에서 홀로 죽음을 맞게 되고 그들의 간절한 희망은 안타까운 엇갈림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한창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와 비슷한 또래의 소년이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평소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나에게 충격이었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아프고 슬펐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지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에 한반도는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말이 생각난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발전으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잘 먹고 잘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 친구들 가운데에는 공산주의 체제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친구가 많다고 한다. 정말 슬픈 일이다.

어른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려주고 통일 교육을 시킨다. 하지만 그 노래는 음악 시간에 따라 불러야 하는 다른 동요와 같았다. 왜냐하면 나는 북한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들을 뉴스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또 나쁜 짓을 했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리나라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나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숙제하듯이 과제물을 제출했다. 그러나 점점 북한의 실체와 동포들의 삶을 공부하면서 나의 가슴은 울리기 시작했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며 북한은 평화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삶을 보면 무조건 미워만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도발을 하는 북한 어른들은 밉지만, 나와 비슷한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평화 통일을 바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나라 속담과도 같이 <크로싱>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유를 찾아 크로싱 했듯이 우리도 차근차근히 통일 공부를 하여 평화통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 준비의 첫걸음이고, 북한의 동포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 그 두 번째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상상해본다. 평화통일이 된 한반도의 무궁화가 활짝 핀 들판에서 북한의 친구들과 손을 마주 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말이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전술(김천 동부초등학교 6학년)



<북한 어린이 학교생활 기사 모음>

살벌한 북한 어린이들

‘살벌한 북한 어린이들’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단 사진이 중국 사이트에 게재되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주시되어 누리꾼들의 ‘살벌하다’라는 반응을 자아냈다. 우리나라 6~7세의 어린이들이 뽀로로를 외치며 인형놀이를 할 때 북한 어린이들은 군사놀이를 즐긴다고 사진과 기사는 말하고 있다. 이 어린이들은 미군이 그려진 표지판을 세워놓고 총을 쏘는 흉내를 내고 있다.

북한 어린이들 사이에선 이 전쟁놀이뿐만 아니라 새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명 ‘뺨총’ 놀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놀이를 통해 사람의 눈이 실명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과연 북한 어린이들은 전쟁놀이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놀이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통일이 되면 남북한 어린이들의 공통 과제인 ‘친해지기’의 한 열쇠인 ‘놀이’. 오늘은 북한 어린이들의 놀이와 우리나라 놀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운동회,

놀이동산과 어린이날에 대해서 알아보자.

북한 어린이들 놀이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타기, 말뚝박기. 예전에 <개그콘서트>에서 ‘마빡이마빡이’ 하면서 흘러나왔던 노래의 한 구절이다. 신기하게도 이 노래에서 언급되는 놀이들은 북한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놀이들이다. 북한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비싼 장난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집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민속놀이를 많이 한다. 또한 북한 어린이들은 주로 나무를 깎아 만든 총으로 총 놀이를 하기도 한다.

요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전쟁놀이는 전쟁 대비와 군사적 목적을 위해, 그리고 ‘미군은 적이다’라 하는 강박적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놀이라고 한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북한과 남한. 하지만 자세히 파고들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북한과 우리나라는 현재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한겨레였기 때문에 아직도 비슷한 민속놀이가 남아 있다. 술래잡기, 숨바꼭질 같은 놀이는 남북한 어린이들 모두 즐기는 놀이이다. 언젠간 북한, 남한 구분 없이 어린이들이 서로 어울려 용기종기 앉아 수건돌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한다.

북한의 운동회와 놀이동산

남한에서는 몸을 튼튼히 하고 협동심을 기르고 즐거운 태도를 갖기 위해 운동회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전쟁에 대비한 군사 훈련을 하고 공산주의 인간을 기르기 위해 한다. 그래서인지 전쟁과 관련된 종목이 많다. 예를 들면 탱크 까부수기, 미국 늪 까부수기, 포탄 상자 나르기 등이 있다.

북한에도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이 있을까? 북한에도 우리나라의 놀이공원과 같이 규모도 시설도 매우 크고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은 도시에 사는 부유하고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북한의 어린이날

6월 6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지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현충일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바로 이 날이 어린이날이다. 더 정확하게 북한의 명칭을 빌려서 말하자면 6월 6일은 소년단 창립일이다.

소년단을 중요시하는 북한에서는 해마다 소년단 창립일을 기념하는데, 만 7세에서 14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날이다. 그러나 북한의 놀이와 같이 어린이날에도 정치적·세뇌적 교육이 녹아 있다.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년단 어린이들은 그 날에 김정일의 업적을 칭송하는 교육과 소년단은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는다. 좋은 선물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어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는 날인 우리의 어린이날. 이와는 달리, 북한의 어린이들은 ‘어린이를 위한 날’마저 선물을 받기는커녕 정치적·세뇌적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극심한 식량난 탓에 좋은 음식을 주기도 어렵고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다.

어서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의 어린이들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과 함께 관심을 받는 행복한 어린이날을 맞이했으면 한다. 어린이날에 남북한 어린이들이 모두 어울려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문예진(울산 서부초등학교 6학년)

북한 학생들의 생활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요즘, 자신의 장래 희망으로 교사, 연예인, 공무원 등을 꿈꾼다. 하지만 평범한 북한 학생들은 자신의 장래 희망으로 농민을 꿈꾼다. 북한의 초등학생들은 익히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소년단의 대원이라는 증표인 빨간 스카프를 매고 교복을 입는다. 북한 초등학생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소년단은 초등학생 2학년부터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이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아람단이나 걸스카우트로 보면 되겠다. 단, 북한 학생들은 우리나라처럼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북한은 소학교(초등학교)를 6년제가 아닌 4년제로 운영한다. 초등학생들은 아침 7시 30분부터 줄을 맞춰 노래를 부르며 등교를 한다. 등교 시간에 자유롭게 등교하는 남한의 학생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수업은 8시부터 시작되며, 수업 시간 45분, 쉬는 시간 15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쉬는 시간에는 남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밖에 나가서 제기차기나 비석치기 같은 놀이를 한다.

북한 학생들의 수업 중 특징적인 것은 바로 업간체조다. 업간체조는 북한 학생들이 3,4교시 사이에 15분 동안 하는 체조로, 주로 건강 태권도나 율동 체조를 한다. 북한의 소학교는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된다.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 활동 또는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북한과 남한의 교육 차이점은 교육 내용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북한의 학제는 보통 1,4,6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은 7~8%밖에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남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북한의 교육과정보다 1년 더 길다. 북한의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정치사상 교육과 과학기술 교육 등등이다. 하지만 남한은 비교적 자유로운 교육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같은 북한의 지도자에 관한 내용을 가장 기본, 우선으로 생각하며 가르친다. 하지만 남한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일상생활에서 쓰일 것을

대비해 공부한다. 이것으로 보아 북한과 남한의 교육체제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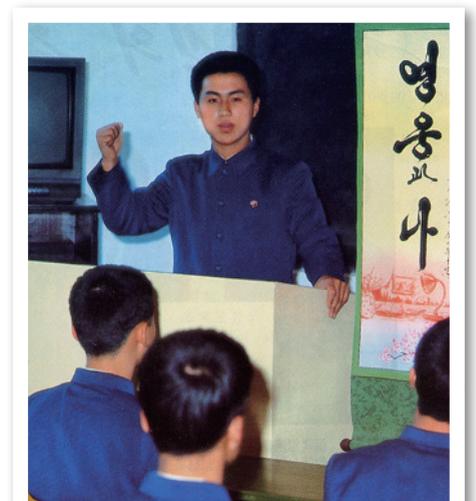
북한에도 외국어 학원이 있다. 한 개 도에 외국어 학원이 하나씩 있는데 학교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을 뽑아 시험을 치게 한다. 시험을 통과해 외국어 학원에 입성한 학생들은 외국어 수준이 정말 놀라울 정도다. 과목 수도 일반 중학교는 20여 가지나 되는데 외국어 학원 학생들은 1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만큼 영어에 더욱 충실 하라는 뜻을 담고 있을 것이다.

북한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쟁이 터지면 미국인들과 말이 통해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는 셈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남한과는 배우는 목적이 많이 다르다.

남한 학생들은 자유로이 등교를 한다. 북한 학생들은 줄을 서서 등교를 한다. 남한은 국어, 수학, 사회 같은 과목을 중요시한다. 북한은 북한의 지도자의 일생을 중요시한다. 남한 학생들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 북한 학생들은 미군과 싸우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

북한 학생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학생들 모두 장래 희망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학원도 다니고 방과 후에 자유 시간도 가진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초등학교 학생들이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박소은(하남 삼리초등학교 6학년)



이해하기 힘들다고? 우리에게겐 일상인걸

하나지만 하나가 아닌 우리의 반쪽, 북한.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은 어떨까? 좋은 학교에서 편안히 공부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우리, 남한 어린이들은 이해를 못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 어린이들이 피할 수 없는 일상이자 생활이다. 그러면 그 학교생활을 한번 알아보자.

먼저 북한은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을 의무적으로 다니며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뉜다. 소학교는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며, 한 과목당 45분씩 하루에 네 과목을 배운다. 그리고 11시 45분쯤이 되면 오전반 수업이 끝나고, 1시부터는 오후반 수업이 시작된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모두 운동장에 모이는 체조 시간. 수업과 수업 사이에 해서 '업간체조'라 불리는데 어린이들에게 '소년 율동 체조'나 '건강 태권도'가 권장된다. 학생들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이다.

그렇다면 교과는 어떨까. 역시나 김정은 가문을 신으로 받드는 나라답게 소학년은 '김일성, 김정일 어린 시절' 등을 배우고, 중학년은 '김일성 혁명 활동', '김정일 혁명 활동', '공산주의 도덕' 등을 배운다. 역사 과목 같은 것들은 대부분 김정은 가문에 유리하게 배운다. 학용품이라... 우리가 Kipling, adidas 등을 쓰는데 비해 북한 학생들은 펜촉과 먹물을 사용하고 지우개는 고무를 잘라 쓴다. 강냉이 껍질로 만든 공책도 있지만, 그 공책은 써도 알아보기가 어렵다. 김정은 가문의 생일 때는 질 좋은 학용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에 들어가 써야 하므로 경건히 모셔둔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김정은 가문을 받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북한 어린이들은 당연하게 여긴다. 또한 북한 어린이들도 착한 행동을 하면 선생님께서 붉은 별모양 스티커를 주시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스티커를 다시 떼는데 이것을 '붉은 별 타기 경쟁'이라 부른다. 북한도 보이с카우트 같은 '소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원이 되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남한 어린이들에게 '천국'이라 불리는 여름방학은 2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겨울방학은 45일 정도이다. 그리고 북한

어린이들은 토끼도 기르는데 이것은 공부만큼 중요하다.

어떤가? 이해되지 않는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모습에 가우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많이 낮설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지만 그 모습이 바로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이다. 다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마 평화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법일 것이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배희정(인천 인주초등학교 6학년)



같지만 다른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모습

여러분, 혹시 북한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 없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 어린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내용은 주로 북한의 정치 사상을 굳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이라는 책은 김정일의 일생을 적은 책입니다. 위인전으로 받들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책을 가지고 복습, 또 복습하며 외우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전래 놀이와 비슷한 놀이를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아바이 놀이(숨바꼭질), 공기 놀이, 고무줄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전쟁 놀이, 말 타기, 축구 등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놀이공원도 생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놀 수 있다고 하네요.
어때요? 우리 나라와 많이 다르지 않죠? 통일이 되면 친하게 지낼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세 번째로, 북한의 학교 소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가방들, 조금 허름하지요? 우리나라와는 많이 비교되지만 알록달록한 가방들, 북한 어린이들은 이런 가방을 살 때 행복을 느낍니다. 안타깝네요. 가방 옆에 있는 그림은 북한의 교복입니다. 해맑게 웃고 있지만 마음만은 고통스러울 어린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사진을 보니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고 규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모두 북한 국기에 들어 있는 색깔이네요.

북한 아이들은 제가 설명한 대로 긍정적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꿈은 농민, 호텔, 백화점 직원 등 먹고살 걱정만 없다면, 국가에 명예로울 수 있는 직업을 택합니다. 부모님이 정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아닌, 국가에 바친 인생이라면. 이젠 통일도 머지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제 하나입니다.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 우리의 미래를 빛내줄 희망이자 한 줄기의 빛입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럼 북한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세요. 당신의 웃음을 나누어주세요. 우리는 함께 웃어야 하는 동족입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임채원(충북 솔밭초등학교 6학년)



<북한 관광지 기사 모음>



강현주 기자의 평양 안내기

저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강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을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 인천공항의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북한으로 저희를 태우고 갈 비행기가 뜨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가슴이 쿵쾅대며 새로운 여행길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한데요. 그곳이 우리가 꼭 가보고 싶었던 평양이기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고 갈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가 이륙장에 참으로 곱게도 서 있습니다. 이제 막 저희 일행은 이 비행기에 오를 참입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 전 북한의 승무원이 얘기했던 '결상띠' 라는 말이 생각나서 우리 일행은 삼삼오오 웃음을 나눕니다. 역시 북한은 우리와는 달리 외래어의 사용이 많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하늘을 날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착륙장에는 몇 대의 고려항공 비행기가 서 있을 뿐 아주 한가롭습니다. 외국의 항공사 비행기와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붐비는 인천 공항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움직이는 내내 평양 사람들의 눈길을 받았습시다.

평양의 거리는 공항만큼이나 한산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다지 높은 빌딩도

없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지 않기에 자동차들도 정체 없이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이 몰려오자 평양도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불빛이 밝혀졌지만, 우리나라의 도심처럼 환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용한 시골 동네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곳이 북한의 수도라는 생각은 그리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평양고려호텔인데 그곳으로 가는 동안에 그 유명한 천리마상, 그리고 개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거리와는 동떨어지게 아주 화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개선문은 1982년 4월 14일 김일성 주석 70회 생일을 기념하여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정교하게 다듬은 화강암으로 형성된 것으로 평양의 상징물로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보다 10cm 더 높고, 오늘날 이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개선문입니다. 네온사인에 비치 모습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평양고려호텔은 1985년에 개관했고 45층의 건물로 어두운 평양 거리에 기라성처럼 서 있습니다. 호텔은 정말 깨끗하게 정돈되어 서울의 어느 호텔에 온 것처럼 친근합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상들리에, 멋진 꽃 장식들, 그리고 남한 스타일과 같은 안내문들...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했습니다. 보통의 호텔처럼 찻집도 있고 음식점도 제법 있어서 외국의 손님들을 맞이하는 곳이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주체사상탑이 눈에 확 뜨이게 자리하고 있고 드문드문 불빛이 켜 있는 아파트가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접할 수 없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호텔 안에는 북한의 유명한 음식인 순대, 팥빙이떡(일명 속도전떡) 같은 고유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칠색송어은지구이라는 아주 귀한 요리도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정된 평양 시내를 잠깐 둘러본 우리 기자들은 숙소로 돌아가 짐을 꾸렸고 다시 순안공항으로 차를 몰아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 평양 취재를 통해 느낀 점은 북한에도 충분히 멋진 관광지가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되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개방해 북한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해봅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강현주(천안 수곡초등학교 6학년)

북녘 땅에서 만난 700년의 러브 스토리, 고려 공민왕릉

살랑살랑 바람을 타고 나들이의 계절 가을이 왔다. 유난히 높고 푸른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마음을 설레게 하곤 한다. 설레는 마음들을 모아 분단이 장애가 되지 않은 듯 날아다니는 고추잡자리처럼 북녘 땅으로 날아가 보면 어떨까?

북한 지역은 우리 민족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많은 문화재와 역사의 유물들이 있고, 자연 경관도 뛰어나 관광지로서도 우수하다. 그중에서도 가을에 어울리고 시선이 끌리는 곳은 공민왕릉이었다.

공민왕은 고려의 31대 왕이며 마지막 왕이다. 험난한 역사적 상황에서의 고려를 원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충신 최영과 야망의 승려 신돈, 그리고 노국공주와의 애뜻한 사랑까지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은 왕이다. 각종 역사 드라마와 영화 <쌍화점>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신의>에서도 공민왕의 모습은 시선을 잡기에 충분해 보인다.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봉명산의 무선봉 중턱, 남향으로 자리 잡은 두 개의 무덤에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나란히 잠들어 있다. 고려 왕릉 가운데 유일한 '부부쌍릉'이다. 출발은 정략결혼이었으나 죽어서도 함께하는 모습은 애뜻한 사랑을 보여준다.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잃은 슬픔으로 정신이 망가져



가면서도 자신이 직접 무덤 설계와 감독을 했다고 한다. 9년간의 오랜 공사에도 공민왕의 사랑이 엿보이는 정릉(노국공주의 묘)은 고려의 여러 무덤 중에 가장 완비되었고 보존 상태가 좋은 고려 왕릉 제도의 완성품이다. 공민왕은 정릉과 나란히 자신의 무덤인 현릉을 만들었다.

주위를 화강암으로 12각의 호석을 돌리고 그 면석에 구름을 탄 12지신과 연꽃무늬를 섬세하게 새겨 넣었다. 밖으로 돌난간을 돌려 견고하게 하였고, 상단에는 한 쌍의 상돌, 뽕, 양조각, 한 쌍의 망주석이다. 중단에는 두 쌍의 문인상과 한 쌍의 석등이 있고, 하단에는 두 쌍의 무인석이 있다.

고분은 안간과 안실로 이루어진 단실묘이며, 안간의 벽면엔 동, 서, 북으로 공민왕이 그렸다고 하는 12지신상 벽화가 각각 네 구씩 배치되어 있다. 구름을 타고 손에 홀을 쥐고, 머리에 동물 머리 모양이 그려진 관을 쓰고 있다. 천장에는 하늘을 상징한 해, 북두칠성 그리고 한 쌍의 3성을 그렸다. 정확한 별자리의 모양이 인상적이다. 안간의 동벽에는 구멍을 뚫어 정릉과 통합을 표시했다고 한다. 죽어서까지 영혼의 왕래를 바라는 공민왕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점이다.

무덤 구역에 배치되어 있는 돌조각들, 특히 문인상과 무인상은 선각을 주로 하면서도 입체감을 잘 살리고, 무인과 문인의 특징 및 젊은이와 늙은이의 특징까지 잘 표현하고 있다. 사람을 그리워한 공민왕이 믿을 만한 신하를 죽어서까지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현릉과 정릉 사이의 들계단은 사이좋은 부부가 손잡고 오르내릴 듯하고 주위의 아름다운 녹음이 절경을 이룬다. 한 여인에 대한 공민왕의 지독한 사랑이 왕릉 곳곳에 담겨 7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사랑이 여전히 진행 중일 것만 같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러브 스토리를 생각하며 그들이 즐겼음직한 개성의 기품 있는 먹거리를 체험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궁중요리와 개성인삼이 들어간 닭곰, 약과와 편수를 먹으면 두 연인을 만나러 시간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만 같다.

공민왕릉이 있는 개성은 고려의 500년 도읍지로서 도심 곳곳에 20여 개의 고분과 고려왕조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남쪽의 아름답고 섬세하고 화려한 문화에 비하여 고려의 유적들은 북방의 강하고 웅장하면서도 남성적인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주나 공주 등에 있는 왕릉과 비교가 된다.

북한에는 고려를 비롯한 고구려나 발해까지 북방에서의 우리 민족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흔적들이 잘 간직되어 있다. 자유롭게 가을 하늘을 날아서 책이나 사진으로만 보던 북녘 땅의 소중한 민족의 역사를 직접 보고 정기를 느끼며 아름다운 문화유적지를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류하빈(대전 글꼴초등학교 5학년)

정몽주의 죽음, 선죽교

여러분은 개성시 선죽동 자남산 남쪽 개울에 위치한 ‘선죽교’를 아십니까? 이것보다 ‘정몽주가 이방원의 일파에 의해 암살당한 다리’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겠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북한에 위치해 있어 가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박연진 기자가 생생하게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선죽교는 북한의 국보급 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었다가 국보 문화유물 제159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없으나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선지교(善地橋)이었지만, 정몽주가 암살되던 날 밤 다리 옆에서 참나무가 솟아 나왔다고 하여 선죽교(善竹橋)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선죽교 통행을 제한하는 대신 행인을 위하여 바로 옆 좁은 돌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선죽교 서쪽으로 정몽주를 제향하기 위해 세운 송양서원(북한 국보 128)과 표충비(表忠碑), 정몽주를 기리는 사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죽교의 전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죽교 돌바닥(왼쪽 사진 참고)에는 비가 오면 더 선명해지 붉은 흔적(혈흔)이 있습니다. 이 혈흔에는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하고 오다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보낸 암살자 수명의 급습으로 피살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몽주가 죽은 자리에서 대나무가 자라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흔적은 철 성분의 산화 흔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충절을 기리는 표충비가 있는데 표충비는 선죽교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는 암수 거북 위에 새겨진 돌 비석으로, 이곳에서 기원을 하면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다는 전설이 개성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돌기둥과 노면이 맞닿는 부분에는 시렁돌을 철도의 침목처럼 올렸으며, 돌기둥 위에 마련된 노면에는 양쪽 가에 긴 난간돌을 놓았고 그 사이를 여러 줄의 판석으로 깔았습니다. 노면 위에는 교량의 난간주 구실을 하는 돌기둥을 3단으로 쌓았습니다.

선죽교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나요? 같은 한 민족이지만 두 개로 나뉘어져버린 남한과 북한이 어서 통일이 되어 자유롭게 선죽교를 구경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박연진(해남 동초등학교 6학년)



통일을 자극하는 맛!

어느새 찾아온 가을! 가을은 풍요의 계절, 독서의 계절, 고독의 계절, 그리고 가을은 식욕의 계절이기도 하다. 북한 친구 유니의 초대를 받아 북한의 음식을 찾아 뉴욕, 파리보다 가기 힘든 북한의 평양으로 길 따라, 맛 따라 떠난 먹자 여행!

먼저 나는 북한의 중심, 평양으로 맛 기행을 떠났다. 평양은 냉면이 유명한데, 원래 냉면은 북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유니가 소개해주었다. 메밀면을 쓰는 것은 옛날에 쌀이 부족해서 값싼 메밀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메밀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기 쉬워 무김치를 같이 먹게 되었다고 한다. 평양냉면은 밀가루, 감자녹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달걀, 배 등을 주재료로 쓴다. 면이 질기고 국물이 시원하여 달고 약간 새콤한 배가 잘 어울려서 뒷맛이 감칠맛이 났다. 원래 냉면은 겨울에 먹는 음식이었다. 지금은 주로 여름에 먹는 계절 음식이지만, 이 맛있는 평양냉면은 사계절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으로 유니가 소개한 평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음식, 평양비빔밥을 먹으러 음식점을 찾아 버스에 올랐다. 버스 창문으로 주체사상탑이 보였다. 주체사상탑은 1982년 김일성의 7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탑으로 촛불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전체 높이 17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어느새 달리고 달려서 평양비빔밥 전문점에 도착했다. 이곳은 유니네 가족이 자주 들른다고 한다. 평양비빔밥은 예로부터 소문난 음식의 하나이다. 쌀과 쇠고기, 녹두나물, 미나리, 고사리, 도라지, 송이버섯, 달걀, 김 등을 주재료로 한다. 네모나게 썬 달걀부침을 띄운 맑은 장국과 나박김치, 고추장을 곁들여 먹는다. 전주에서 먹어보았던 전주비빔밥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평양어죽'이다. 예로부터 한여름 더위를 가시고 몸을 튼튼히 하는 데 효과 있는 보양 음식이다. 일반 어죽과 다르게 평양어죽은 '어죽'인데도 물고기가 아니라 닭고기로 만든다는 게 참 신기했다. 고추장과 오이냉국을 같이 먹어야 제맛이라고 했다.

유니네 집 별미도 소개해주었다. 유니 어머니께서 끓여 주신 대동강 송어국! 송어는 유니 아버지께서 직접 잡아다 주셨다. 대동강 송어국은 송어를 손질하여 쇠고기, 썩갠, 달걀 등을 넣고 끓인 음식이다. 맛이 특별하고 영양가가 매우 높다고 한다. 대동강 송어 요리는 다양했는데, 송어국 말고도 송어찜, 송어탕도 있었다. 다 먹어보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송편처럼 추석 전통 음식으로 찹쌀, 기장, 차조 등의 가루를 찌서 기름에 지진 떡인 '노치'를 먹는다. 유니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노치는 북한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한다. 먹어보니 고소하고 꿀만 빠진 호떡 맛이 났다.

유니 덕분에 평양에 와서 여러 음식을 맛보았다. 다음에는 유니네 가족을 남한으로 초대하여 남한 맛 기행을 떠나기로 약속했다. 북한 음식은 우리 남한과 비슷한 점도 있는 반면, 전혀 다른 점도 많았다. 그러나 평양 음식들은 담백하고 솔직하고 투박하고 자극적이지 않았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건강에도 좋은 음식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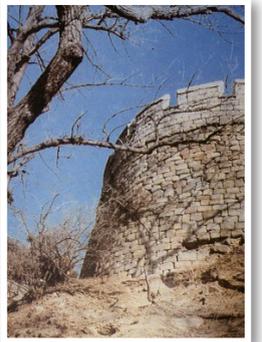
유니와 아쉬운 이별을 뒤로한 채 북한에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에 김일성 광장과 주석단이 보였다. 텅 빈 김일성 광장을 보니 배는 불렀지만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다. 아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락만 주고받는 어색한 사이였다가 먹거리로 친해진 유니와 나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으로도 사람들끼리 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북한이 함께 주고받을 맛 기행을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만 있다면 통일을 자극하는 맛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모두가 한술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신은주(부산 을숙도초등학교 6학년)



북한의 국보 1호, 고구려의 평!양!성!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 있는 국가 중 하나인 고구려. 저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양성을 소개하는 이유는 고구려의 수도이자 제가 꼭 가보고 싶은 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평양성으로~ GO!

고구려의 또 다른 궁궐, 안학궁

안학궁은 427년,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할 때 지었던 궁궐로, 안타깝게도 현재는 평양시 대성산 기슭에 터만 남아 있습니다. 안학궁은 변 길이 622m, 둘레 2488m, 넓이 약 38만 m²입니다. 또한 경복궁 근정전은 높이가 50m이지만 안학궁 동명전은 그 높이가 무려 87m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안학궁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어마어마한 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학궁은 668년 고구려 멸망 당시 당나라군이 불을 질러 무려 3달 동안 탄 나머지 결국은 안타깝게도 터만 남게 되었는데요. 고구려의 멸망과 운명을 함께한 안학궁, 잘 둘러보셨나요? 다음 단계로 고고씹!

평양성의 성들

이번에는 평양성을 지키는 문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평양성은 왕궁이 자리 잡고 있는 내성과 그 왕궁을 보호하는 북성, 관청이 있는 중성, 백성들이 사는 외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6세기 중엽에 세워진 전체 높이 19m인 평양성의 문, 대동문이 있습니다. 대동문은 내성의 동문으로 평양시 이문리에 있습니다. 또 다른 문인 보통문은 평양성의 서문으로 6세기 중엽에 세워졌습니다.

평양성의 아름다운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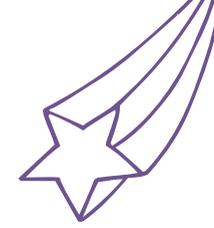
평양성의 연광정은 제일누대, 만화루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1111년 현재의 자리에 다시 정자를 세우고 이름을 '산수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 보수 및 재건하며 현재의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을밀대의 지금 있는 건물은 조선시대 1714년에 다시 세웠습니다. 을밀대가 있는 축대는 고구려의 축성술을 엿볼 수 있으며, 그 높이는 11m나 된다고 합니다. 축대 위에는 동·서·북 3면에 평여장(平女牆)을 쌓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총안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을밀대는 목제 조각 장식들이 우수하고 제공(諸貢)과 첨차, 중보받침두공, 화반(花盤), 대공(臺工) 등이 세련된 솜씨를 보여줍니다. 특히 일반적인 형식과는 조금 다르게 중장여와 주도리 사이를 띄우고 이곳에 화반을 끼워 화반이 겹겹으로 놓이게 하여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벽루는 평양 8경의 하나로 금수산 모란봉의 동쪽 청류벽 위에 있습니다. 원래는 영명사의 부속 건물로서 고구려시대인 393년에 세워진 영명루였습니다. 12세기 초 고려 예종이 군신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이안에게 명하여 이름을 다시 짓게 했는데, 거울같이 맑고 푸른 물이 감돌아 흐르는 청류벽 위에 떠 있는 듯한 누정이라는 뜻에서 부벽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 때 불타서 1614년에 중건하였고 현재 건물은 6·25전쟁 때 불탄 것을 1956년과 1959년에 복원한 것입니다. 정면 5칸(14.5m), 측면 3칸(7.68m)에 이익공 두공을 얹은 흘림기둥이 합각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단층 목조 건물로 '천하제일강산'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누각은 뛰어난 건축술뿐만 아니라 모란봉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로 진주 축석루, 밀양 영남루와 더불어 조선 3대 루의 하나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한편 고려 때의 시인인 김황원은 이곳 경치를 보고 시를 절반 지어놓았다가 부벽루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에 다 담을 수 없다 하여 붓을 놓고 통곡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신현진(서울 광남초등학교 5학년)



북한의 관광지 둘러보기

동명왕릉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고주몽)의 묘로 427년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할 때 함께 옮겨온 것이다. 고구려의 고유한 무덤 형식인 돌칸흙무덤(석실봉토분)으로, 수백 년 묵은 소나무 숲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능 주변에는 14기의 고구려 무덤이 있는데, 동명왕릉은 그 고분들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며 분구(墳丘)에는 2단 이상의 돌기단이 둘러져 있고 묘역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북한은 1993년에 동명왕릉 일대를 대대적으로 재건하였는데 기념비와 돌상, 능문과 제당을 건립하였다. 2004년 동명왕릉과 그 주변 14기의 고구려 무덤들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동명왕릉 앞에는 동명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정릉사가 있다.

단군릉

북한은 1993년 10월 단군이 5011년 전의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단군릉 발굴 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이곳에서 두 사람 분의 유골 86개와 금동왕관 앞면의 세움장식, 돌림띠 조각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유골 감정 결과 하나는 남자, 다른 하나는 여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북한은 이를 단군 부부가 함께 묻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전문 연구기관에서 이 유골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약 5011년 전의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무덤은 고구려양식의 돌칸흙무덤(석실봉토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북한은 이 무덤이 고구려시대 때 복원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단군릉은 1994년에 재건한 것으로, 무덤의 크기는 높이 22m, 한 변 길이 50m이며, 화강석 1994개를 쌓아 올렸다. 신화적 인물인 단군이 실존 인물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북한이 사용한 연대 추정 방식의 문제와 북한 단독 발굴 조사였다는 점에서 한국과 외국 역사학계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1946년 10월에 개교한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현재 1만2000여 명의 학생들이 15개 학부, 80개 학과에서 교육받고 있다.

156만m²의 부지에는 교사 이외에도 과학도서관, 인쇄공장, 자연박물관, 출판사 등의 건물과 기숙사, 병원, 종합 편의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연구소와 50개 연구실, 박사원이 산하에 있으며 1000여 명의 교수와 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다.

학생들은 김일성 주체사상·혁명전통·노동정책사·당정책·조선노동투쟁사·세계노동당사·김정일문헌·정치경제학 등의 교과목을 전공과 무관하게 공통 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데 이 과목들은 전 교과목의 40%에 달한다. 인문사회계는 다른 일반 대학과 같이 수업 연한이 4년이나 자연계는 5년이며, 전공 학과에 따라 야간제와 통신제가 있다. 입학 시 소속 학교장과 조선노동당의 추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합격자 선발에 있어서도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과 공산당 활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출신 성분, 정치 조직 생활, 본고사 성적을 각각 1/3씩 반영한다. 따라서 출신 성분과 당성,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인가와 공산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선시하고 있다.

옥류관

대동강 기슭 옥류바위 위에 합각식 지붕을 이고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옥류관은 구슬처럼 맑은 물이 감돌아 흐르는 옥류벽 옆에 지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본관과 별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관 1층에는 100여 석의 좌석을 가진 2개의 식당과 30~40석 규모의 연회장, 8~15석을 가진 6개의 작은 방 등 30여 개의 중소 연회장이 마련돼 있다.

2층에는 600여 석 규모의 대연회장이 있다. 별관에는 대중식사실, 가족식사실, 연회장, 그리고 대동강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야외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냉면 하면 옥류관이라고 할 정도로 냉면이 옥류관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밖에 평양온면, 대동강 송어국, 송어회 등도 알려져 있다. 늦그릇에 담겨 나오는 옥류관 냉면은 메밀로 반죽한 면질이 서울 냉면에 비해 부드럽고 육수 맛도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옥류관은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방북한 남한 인사들의 단골 방문지로도 유명해졌는데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도 방북 둘째 날 옥류관을 방문, 옥류관 냉면 등 북한 요리를 맛보기도 하였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이영란(부산 화잠초등학교 5학년)





Part. 3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나에게 주는 의미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활동했던 지난 8개월, 어린이 기자들에게 이 기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며 '과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나에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글을 모았다. 어린이 기자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서로간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소원을 말해봐

“하변아, 이번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 너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과 상의해보고 내일까지 의사를 알려줄 수 있겠니?”

5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어느 봄날,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의 행운은 시작되었다.

새 학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나는 버르던 걸스카우트를 포기하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던 나에게 기자단은 충분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국의 초등학교 중 딱 100명만 할 수 있다는 점에 욕심이 나고 꼭 기자단이 되고 싶었다.

조마조마하며 기다리던 합격 소식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5월의 발대식에 참가하였다. 반가운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여러 선생님들과 1기 기자단을 만나고, 발대식과 기자 소양 체험을 하며 기자증과 기자수첩까지 받으니 소속감이 절로 생기고 의욕에 불탔다.

이후로 매달 두 번의 과제물로 기사를 쓰고, 꼼꼼한 ‘파란펜 선생님’의 피드백도 받고,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블로그를 보며 지식과 정보를 얻고, 다양한 소통의 카페 활동도 재밌게 했다. 내 글이 우수 기사로 뽑혀 블로그에 오르기도 하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정기 간행물에 나오기도 해 신기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블로그에 올린 내 기사에 달린 칭찬과 격려의 댓글에 감격스러움도 느꼈다. 카페의 공고를 보고 한 달여 동안 열심히 써서 응모한 ‘통일창작동화 공모전’에서 상을 받고 우쭐하던 기억과 특히 10월 카페 달력에 모델로 내 사진이 실린 것은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권역별 모임에 참가를 못해 아쉬워하며 카페에 올려진 자료를 통한 간접 체험으로 사진 속의 기자들을 부러워해야 했다.

많고 많은 소중한 시간 중에 최고는 역시 여름방학 때 참가했던 ‘통일미래

힐링캠프’이다. 즐겁고 재미있으면서도 마음이 먹먹하기도 했던 캠프였다. 초등학교로서 견학 기회가 적은 곳인 DMZ와 판문점 일대 견학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판문점에서의 북장군제와 주의 사항을 들으며 머리가 쭈뼛거렸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다. 판문점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눈앞의 분단 현실을 직접 느끼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안보와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판문점 내에서 몇 걸음 정도의 너무나 가까이 있는 북한과의 거리에 당황했다. 손 닿을 듯한 북녘 땅을 보며 한 민족 간의 대치 상황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늠름한 국군 장병 아저씨들의 절도 있는 모습에 감탄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우리의 일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꾸준히 지속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소중한 경험의 시간들은 나에게 큰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고, 잊고 지내던 애국심과 통일 조국의 소망들을 오래된 잠에서 깨워주었다.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체험하고 견학하면서 조국의 분단과 통일 미래에 대해 어렵지도 무겁지도 않게 생생하게 느끼고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운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하면서 전국 각지에 든든한 친구들이 생긴 것이다. 통일 조국의 염원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고민을 함께 했던 만큼 더욱 각별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다.

요즘도 나는 매일매일 통일 관련 뉴스를 살피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블로그를 보며 기자단 카페에도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나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통일 미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1년간의 기자단 활동을 마무리하며 소중한 나의 경험과 느낌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지만 더욱 견고해졌다. 사랑의 표현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올 통일 조국을 위해 항상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겠다. 지난 시간 동안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점을

고스란히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하기 전의 내 소원은 저절로 공부가 잘해져서 전국 수석이 되는 것과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누군가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라고 묻는다면, 나는 진심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할 것이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류하빈(대전 글꽃초등학교 5학년)

통일 여행 떠난 100명의 꼬마들

올해에 내가 가장 자랑스럽고 잘했다 싶은 일이 바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되면서 통일을 향한 첫 기차를 타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만든 즐거운 추억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8월 2일 여름방학 때 갔었던 통일미래 힐링캠프가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얼굴도 처음 보는 친구들과 캠프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하면서 갔다. 그러나 오히려 2박 3일이 아니라 1박 2일인 것을 아쉬워할 만큼 즐겁게 놀았던 것 같다.

우선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DMZ에 들어가 제3땅굴을 견학했다. 금세 친해진 친구들과 축고 어두운 땅굴로 들어가는 기차를 타고 관람하는 시간이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이런 동굴까지 치밀하게 만들면서 서로 싸워야 하는지 답답했다. 다음으로 도라전망대와 판문점에 가서 북한을 작게나마 살펴보았다. 조만간 작은 망원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두 눈으로 북한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날 밤에는 레크레이션 시간도 가지고 캠프파이어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들과 하룻밤을 보낸 것이 가장 좋았다. 서로의 학교 이야기도 하고 몰랐던 친구들이랑 속에 있던 말들을 털어놓기도 하고, 색다른 친구도 만나보는 좋은 기회였다. 우리는 연락처도 교환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다. 그 날은 올림픽을 보다가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거의 밤을 새웠다. 학교에서 수련회를 온 것처럼 설렘 밤이었다.

이런 신났던 힐링캠프도 다녀오고 격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도 커졌다. 원래 통일에 대한 큰 열정이 없던 내가 통일에 관한 영화도 찾아보고 인천상륙작전 기념관도 가보는 등 통일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통일이 열린 뒤에 더 이상 아픔 없이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자단이 열심히 활동한 만큼 더 빨리 통일이 올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게 이제 해단식만 남았다고 하니 너무 아쉽다. 해단식 이후로도 우리 기자단은 통일을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할 것이다. 서로를 소중한 인연으로 기억하면서 말이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김서현(인천 소래초등학교 6학년)

통일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주 과제를 받고는 한참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내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하기 전에는 통일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는 많은 고민이 생겼다.

통일이 나에게 주는 이점이 뭘까? 통일이 되면 뭘 해야 할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자꾸자꾸 생각나 나를 괴롭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전에는 내게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낯설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8개월이라는 시간은 나를 정말 많이도 변하게 했다.

꼭 통일이라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그동안은 소홀히 여겼던 일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나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엄마도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이 되었다고 기자단 활동을 하길 잘했다고 얘기

하신다. 특히 나를 많이 변화시킨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었고 세계사도 관심이 생겼다. 당연히 세계 속의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 겪는 많은 상처들이 가슴이 아팠고 통일이 된다면, 아니 꼭 통일이 되어서 세계 역사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통일에 앞장서는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는 결심도 생겼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을 우리나라의 적이 아닌 내 형제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전에는 싸워야 하는 나라, 서로 해가 되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기자단 활동을 하다 보니 어떤 나라보다 우리에게 가까운 바로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습관적으로 친구들에게 통일에 대해, 북한에 대해 바른 지식을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가끔 내가 통일 전도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혼자 웃는다. 또 생각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사실 그동안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었다. 친구들과 그렇게 하물며 가족 사이에도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면 관심도 이해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듣고 생각한 것을 글로 쓰다 보니 생각하는 범위가 참 많이 넓어졌다는 생각을 한다. 무엇보다도 나랑 다르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이해를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 많이 듣고 생각하며 입장 바꿔 생각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2주마다 과제를 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내 글이 베스트 글로 뽑혔을 때는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고 내가 대견하기도 했다. 이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이 거의 끝나가지만 이 활동이 마무리된다 해도 내 주변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과 사랑을 더 키워갈 생각이다. 그래서 어디서든 꼭 필요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특히 곧 통일될 우리나라에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강현주(천안 수곡초등학교 6학년)

5월 1일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정식으로 출발하는 발대식이 열렸다. 문집부 대신 선생님의 권유로 어떨걸에 신청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그리하여 5월 1일 발대식으로 시작했다. 서울역에 모여 조선일보로 간 뒤 교육을 받고 정부종합청사에서 기념식도 하고, <코리아> 영화도 보면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시작했다. 다른 단체의 어린이 기자단과는 달리 멘토의 설명과 팀별 의사 교류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내가 진짜 기자가 된 느낌으로 가슴 벅찬 설렘으로 내 스스로 나에게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래, 잘해보자. 아자아자!'

그 후 매번 과제가 발표되면 자료를 찾고 조사하며 남북한의 현재 상황과 더불어 많은 통일 소식을 접해 뜻깊고, 통일교육 시범학교인 우리학교에서 북한에 대해 활동할 때 나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북한에 바로 접해 살고 있는 나에게서는 무서움보다는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진심어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기사를 쓰면서 시장님과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나 스스로 글쓰기 실력이 다양하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파란펜 선생님의 도움으로). 또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정보 공유도 하고 서로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나에게 다시 한 번 '막연한 통일'이 아닌 '준비된 통일'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통일이 되면 과연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좋았다. 비록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이 내년 3월까지이지만 그냥 이대로 멈추기보다는 통일부 1기가 계속할 수 있는 동아리라도 만들어 통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 남북 평화 통일의 주역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기면 도전하는 내가 될 것이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고영수(파주 문산초등학교 6학년)

짧은 시간, 알차게 보낸 기자단 생활

“자~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할 사람은 점심 식사 후 면접을 보러 가세요”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난 망설임 없이 면접을 보러 갔고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오 기자가 되었다. 내가 ‘제1기’라는 것에 신기했고,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난생처음 ‘기자단’이라는 것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맘껏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다. 때론 과제 기간을 놓쳐 제 기간에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던 적도 있고, 나의 기사가 Best 기사가 되어 신문에 올라간 적도 있었다. 또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서 쑥쑥 키운 통일 글쓰기 실력으로 ‘서울학생 통일 글짓기’에 나가 뜻깊은 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서 ‘판문점 가기’, ‘북한 음식 만들기’ 등 값진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어 그것 또한 나의 인생 속 일부 추억이 되었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통일미래 힐링캠프는 새로운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야기 보따리를 많이 풀었던 소은이, 양쪽으로 땅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현주, 맘씨 착하고 글쓰기 실력도 뛰어난 하빈이, 나와 마음이 딱딱 맞았던 예진이, 얼굴에 띠 웃음이 예쁜 서현이, 생각보다 말 많고 귀여운 윤서...

이 친구들과 함께 ‘통일’이라는 숙제를 하기 위해 시~원한 제3땅굴을 함께 견고, 무더운 땀별 아래에서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파이팅!” 이라고 외치며 사진을 찍던 순간이 생각난다. 항상 내 곁을 지켜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무더운 땀별 아래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실제로 북한 인민군을 볼 수 있었던 판문점에서 마네킹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던 남한 군인 아저씨들도 보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판문점에 들어가기 전 북한이 단체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자단 티셔츠의 속과 겹을 뒤집어 입었다.

판문점에서 본 것처럼 남과 북의 현실은 한 민족인데에도 불구하고 경쟁하고, 지켜보지 않고선 의심되는 사이였다. 하지만 나를 한 발자국 다가가게 해준 ‘Food made in north korea’!

다르다고만 생각했던 북한의 음식 중 두부밥은 유부초밥과 같은 맛이라 친절하게도 내 입맛에 맞았다. 평상시에 유부초밥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해준 두부밥.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통일에 대하여 관심도 더 많아졌고, 알찬 체험도 하였고, 또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오은지(서울 공릉초등학교 6학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하며 변화된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하기 전 나의 통일의 대한 생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다. 우리 담임선생님께서서는 통일이 돼서도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북한으로 가는 데 사방이 온통 지뢰밭이어서 그 지뢰를 없애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다.

근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나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지금은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탈북 선생님 강의와 북한에 대한 동영상과 여러 가지 과제들을 보고 쓰고 들으면서 통일을 하면 좋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사회 시간에 6·25전쟁에 대해 배우고 북한에 대해 배우니 더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통일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아빠께서는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없으셨다. 그런데 내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하면서 아빠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다. 통일을 하면 좋은 점 등을 물어보셨다. 나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서 배운 것을 대답해드렸다. 그러니 아빠께서도 통일은 빨리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했으면 좋겠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김윤서(충북 솔밭초등학교 5학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함께하면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란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통일을 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안 좋은 점이 많을 것이라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나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달라진 것 같다. 그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과제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뒤늦게 밀려온다.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참가하게 된 통일미래 힐링캠프에서 힘들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귀찮다는 이유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과제도 매일 빼먹었던 일이 이제야 하나씩 하나씩 기억나기 시작한다.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후회가 들지만 그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것에 대해 좋은 추억이었다고 생각한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김나운(고성 고성초등학교 6학년)

통일! 꼭 필요한 존재

나는 이 곳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 들어와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통일? 그거 하면 북한 때문에 돈 써야 하니까 안 해도 되잖아’라고 생각했던 내가 기자단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만약 통일이 없다면 우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추억으로 남겨진 6·25전쟁을 다시 겪을 수 있다. 또한 서로 보고 싶은 가족이지만 단지 남과 북으로 갈려졌기 때문에 이산가족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기자단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1년... 내 생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존재. 그렇다 바로 통일이다.

남북이 분단된 지도 어느덧 60여 년.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 꼭! 통일이 필요하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김다희(양구 방산초등학교 5학년)

통일부 기자단을 하면서

처음에 6학년인데 어린이 기자단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나는 어린이 기자단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발대식에도 참가하고 싶었다. 그런데 5월 1일이 금명초등학교 운동회 날, 내 6학년 마지막 운동회라서 아쉽게도 발대식에 참가를 못 하였다. 그리고 다음 권역별 모임에도 못 가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청을 드디어 하였다. 3차 권역별 모임은 충주였다. 우리 집은 부산이라서 아침 5시에 일어나 충주에 도착하였다. 거기에서 곳감 체험, 승마 체험, 찜빵 체험 등 많이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겨레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하여 즐거움은 배가되었다. 나는 어린이 기자단으로 충주에 가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 내는 기사문은 좀 깜빡하기도 하고 독수리 타자라서 늦게 내기도 하고, 미리미리 하기도 하였다. 나는 기사문을 쓰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면서 겨우겨우 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과제를 제출해서 타수가 예전보다 빨라졌지만, 더 빨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김형서(부산 금명초등학교 6학년)

이번 1기 활동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



저는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가을 소풍입니다.

한겨레중고등학교 언니 그리고 오빠들이 우리 활동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을 소풍에서 언니, 오빠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해단식 때 언니, 오빠들과 다시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통일 찜빵을 만들면서, 먹으면서도 항상 통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체험 활동에 불참한 날이 있었지만 카페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통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단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해단식 일정이 잡히니 아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단식을 앞두고 있어도 저는 통일이 될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정민경(광명 하안남초등학교 5학년)

판문점, 통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곳

8개월 전, 난 준비되지 않은 채 얼떨결에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되었다. 하지만 내 친구들에게 통일의 필요성, 장점, 분단국가의 단점 등을 열심히 알리며 나름대로 통일부 어린이 기자의 몫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자단이 되어서 통일에 대한 행사도 열심히 참가했는데 참가한 행사로는 통일미래 힐링캠프, 제2차 권역별 모임이다.

통일미래 힐링캠프는 나 이외에 다른 기자들을 만나보고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게다가 쉽게 가볼 수 없는 판문점에도 가보다니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제2차 권역별 모임은 북한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는 통일미래 힐링캠프의 프로그램 중 판문점에 간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판문각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군인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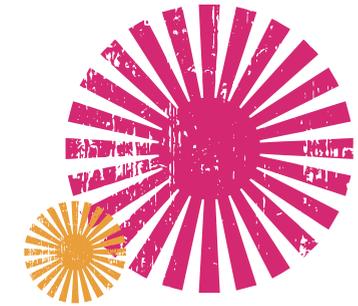
군인의 손은 권총을 재빠르게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북한 군인과의 눈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고 했다. 나는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군인들과는 접촉을 금지하는 규칙 때문에 말을 걸 수 없었는데 무표정한 군인들이 무섭게 느껴졌다.

판문각에서 북한 쪽으로 걸어가 북한 땅에 발을 딛는 순간은 생애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다는 이유로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고 설렘과 긴장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제3초소를 보았다. 나는 처음에 이 건물이 허술하게 생겨 휴게실인 줄 알았지만 이 건물은 바로 관측소이자 초소이다. 보기에는 허술하게 생긴 이 건물의 역할은 그 구역의 북한군을 관측하는 것이다. 이런 건물들이 판문점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북한을 감시, 관측하고, 북한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단국가의 아픔이 실제로 느껴졌다. 나는 우리가 한 민족인데 서로 감시해야 된다는 사실이 슬펐다.
'우리는 꼭 통일되어야 된다.'

힐링캠프에 다녀오면서 다시 한 번 이 생각이 들었다. 판문점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데 내가 꼭 한 몫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장소이고, 통일부 기자단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곳이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방주호(하남 삼리초등학교 5학년)



통일부 추억여행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하며 좋았던 점

나는 통일부 기자단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뽑으라면 여름(8.2~8.3)에 했던 통일미래 힐링캠프를 뽑고 싶다. 이 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1박 2일 동안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며 남북 전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친목활동을 도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면 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사진을 찍은 것이다. 내가 이 힐링캠프에서 가장 만족했던 것은 판문점에 간 것이었다. 판문점은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 곳에 내가 갔다는 것만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이런 체험은 또 하기를 바란다.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솔직히 예전에 ‘통일’이라고 하면 ‘통일?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통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많은 기자 소양 체험과 과제를 위한 조사를 통해 통일을 하려면 확실한 비전과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8개월 동안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으로 인해 통일이 더욱더 절실해진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나를 이렇게 통일에 관심이 많은 기자로 만들어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신현진(서울 광남초등학교 5학년)

나를 바꾼

통일부 기자단

제가 요즘 과제를 자주 안 하고 카페 유머 게시판에 글만 올렸는데 이번에 14차 과제를 보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의 지난 활동들을 생각해 보면 첫 발대식에

참여하지 못해서 나는 활동 초기에는 사실 전혀 통일부 카페에 관심이 없었다. 과제도 안 하고 권역별 모임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통일미래 힐링캠프에 참여하고 나서 본격적인 통일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통일미래 힐링캠프에서 친구도 많이 만들고 숙소에서는 여러 레크리에이션과 캠프파이어 등 즐거운 시간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탈북 강사님이 오셔서 북한에 대해 설명 해주신 것이다.

선생님께서 북한 교과서와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면 좋은 점 등을 설명해주셨고, 북한의 과자인 손가락 과자도 주셨는데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특별한 맛이였다. 특히 통일 캠프 때는 마침 올림픽 때여서 다 같이 응원을 한 것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리고 통일부 기자들과의 첫 하룻밤이 지나고 판문점에 갔는데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부동자세로 서 있는 JSA의 군인들, 남한을 망원경으로 마주 보고 서 있는 북한 군인의 모습을 보며 왜 우리는 같은 민족이 이렇게 싸워야 하나라는 생각에 안타까웠다. 또 DMZ에서 보았던 여러 초소들의 현실은 우리가 정말 분단국가에 살고 있음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도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봤던 북한의 모습, 그들은 아주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북한 어린이들도 우리나라 아이들과 분명 다를 게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통일부 기자단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고 나는 먼저 캠프를 통해 친해진 김민준 기자와 최림 기자의 얼굴이 생각났다. 그리고 버스에서 친해져서 함께 과제를 하여 베스트 기사에 선정되는 기쁨을 같이했던 문예진 기자가 생각난다. 나는 나름 열심히 기자단 활동을 했던 것 같다. 내 카툰이 베스트 기사가 된 적도 있었고 베스트 기사가 3번 연속 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글을 카페에 올리면 기자들이 댓글을 올려줘 기뻐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점점 더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 내 친구 중에는 “통일, 그만 거 왜 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통일은 그야말로 우리의 소원이어야 한다고 이제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으며, TV나 신문에서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기사도 이제는 큰 관심을 갖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이제는 통일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갖고 그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무엇을 해야 통일된 시대에 훌륭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통일부 활동을 추천해주고 싶다. 벌써 기자단 활동을 끝내야 하는 게 많이 아쉽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고 하였으니 통일부에서는 못 만나도 우리 통일부 기자들과의 우정은 통일되는 그 날까지 절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우림(부산 남천초등학교 6학년)

추억의 기차를 타고 발대식으로

2012년
5월 1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처음으로 참석한 곳이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발대식이었다. 내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된 것이 실감나게 해주는 자리였다. 그 날 발대식에 다녀와서 기자단 활동을 열심히 해서 베스트 기사로 뽑혀야겠다는 마음으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2년
5월 25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카페에 소그룹 활동을 시작한다는 첫 과제 공지가 떴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처음으로 써보는 기사였기에 설렘 반, 두려움 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사를 썼다. 통일이라는 생소한 주제였기에 더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도 첫 과제를 열심히 했다는 것에 나는 의미를 두고 있다.

제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체험 행사 공지

2012년 6월 25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체험 행사 공지가 떴다! 1박 2일 동안 통일부 어린이 기자님들과 함께 판문점에 가고 함께 지낼 생각을 하니 설레었다. 하지만 낯선 친구들과 만날 생각을 하니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가는 체험 행사여서 얼른 신청을 했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월간 베스트 기자왕

2012년 6월 26일 월간 베스트 기사를 뽑는다는 공지가 카페에 떴다. 베스트 기사로 뽑히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던 나는 베스트 기사가 정말 되고 싶은 생각에 열심히 카페 활동을 했다.

2012년 7월 28일 내가 5월 베스트 기사로 뽑혔다는 결과가 카페에 올라왔다! 너무 감사하고 또 내 자신이 뿌듯했다. 기자단이라는 것이 의미 있고 자랑스럽게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통일미래
힐링캠프

2012년 7월 30일 통일미래 힐링캠프에 대한 최종 안내가 떴다. 설레는 마음으로 8월 2일을 기다리며 짐을 쌌다. 어서 기자님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1박 2일을 지내고 싶었다.

1박 2일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다. 1박 2일 동안 기자님들과 친해지고 함께 제3땅굴, DMZ, 판문점을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인사를 해주었던 기자님들에게 정말 고마웠다

힐링캠프를
다녀와서..

2012년 10월 6일 권역별 모임을 다녀왔다. 권역별 모임에서 북한 음식을 만들고 맛보고 배웠다. 북한이 음식도 못 먹고 식물의 뿌리를 먹는다는 것을 알고 얼른 통일이 되어 북한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싶었다. 그리고 베스트 기사로 뽑히는 법에 대하여 강의도 들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열심히 배운 대로 기사를 써서 반드시 베스트 기사로 뽑힐 것이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렸다.

제1권역별
모임

베스트 기사로
뽑히다!

2012년 10월 12일 4차 과제에서 베스트 기사로 뽑힌 이후로 10차 과제에서 또 베스트 기사로 뽑히게 되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뽑아주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남께 너무 감사했다. 내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하면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베스트 기사로 뽑혀서 소식지에 실려보는 것이다. 아직 실릴 정도의 기삿거리는 안 돼서 실리지 않았지만 뽑혔으니 내 목표의 반은 이룬 셈이다. 그 이후 11차 과제, 12차 과제, 13차 과제에서도 베스트 기사로 뽑혔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2년 12월 8일 기사를 쓰다 보니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집에 오면 항상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카페에 접속하는 일상들이 생각났다. 이제 이런 것도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 발대식에서부터 해단식에 오기까지 통일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내 스스로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이고 돈만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도 없었지만, 통일이 되고 난 후에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 땅도 넓어지고 북한의 자원과 우리나라의 IT기술이 합쳐지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북한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서 통일이 되어서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유정민(서울 통일초등학교 6학년)

끝나지 않을 우리의 이야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카페에서 글들을 찾아보다가 “아차, 오늘이 과제가 나오는 날이지” 하며 과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번 과제는 평소의 과제들보다 더욱 특별하고 중요한 과제가 나왔다. 바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추억여행’이다. 나는 이번 과제를 확인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기자단 친구들도 떠올랐고, 기자단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내 머릿속에 하나 둘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했다.

처음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 들어올 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제출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벌써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끝이라는 생각에 많이 섭섭하다. 돌이켜보면 9개월 정도 되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첫발을 내디뎠던 발대식.

모두 어색해서 말도 걸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현주가 나에게 “넌 어디에서 왔어?”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어서 나도 마음을 열고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다. 또 내가 마음을 열어갈 때쯤 우리의 뒤편에 앉아 있던 인서가 용기를 내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며 친해진 우리는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통일교육원 40주년 행사에 가서도 서로의 자리도 맡아주고, 손도 꼭 잡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때 인서와 현주가 먼저 말을 걸어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발대식 이후에는 내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 소홀해졌던 것 같다. 과제가 나올 때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하며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엔 하지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시험이니 뭐니 해서 카페나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후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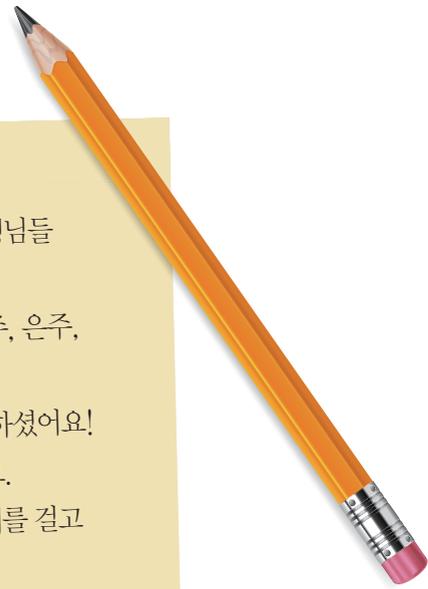
나에게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단순히 통일에 대해 알아가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좋은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다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메신저를 통해 서로 더



알아가며 친해지고. 정말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다. 비록 조금 뒤면 우리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끝나지만 우리의 우정은, 또 우리의 통일에 대한 열정은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임수진(충남 대평초등학교 6학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운영진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단을 통해 친해진 인서나 현주, 은주,
하빈이, 벼리 다들 고마워!
다른 기자단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연락하면서 지내요.
2기 기자단 후배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안녕, 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임채원이야

어느새 겨울이 되고 해단식이 가까워지고 있네. 발대식이 었그제 같은데. 지난 9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어. 통일부 기자라는 사실도 두근두근 설레었고, 통일을 위해 글을 쓴다니 마음도 몽클했어.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는 말이 실감나.

100명의 친구들아, 이젠 안녕이네.

얼굴 못 본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전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고마워. 너희 덕분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통일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도 있었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난 통일을 위해 나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좋았어. 전에는 특정 대상 없이 글을 썼지만 이젠 누군가에게 글을 써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지.

앞으로도 통일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이 될 때 오늘의 추억을 떠올리자. 북한산 호두가 국내산 호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젠 알 것 같아.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왜 내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되었는지, 왜 내가 너희 100명의 친구들을 만났는지. 그동안 재미있었어. 통일이 뭔지 알 수 있게 해주고, 날 성숙하게 만들어준 너희를 사랑해.

혹시 알아? 통일이 이루어진 그 날 철조망 끊으러 가다가 마주친 사람이 너희일지? 그때 내가 외칠게. 알아봐줘.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꿈이 이루어진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임채원(충북 솔밭초등학교 6학년)

2012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하면서 생각이 커진 '나'

따뜻한 5월 1일 봄날 기차를 타고 정부중앙청사에 가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했는데 벌써 추운 겨울이다. 8월 2일부터 3일까지의 1박2일 힐링캠프를 하고, 10월 6일 권역별 모임에도 참여를 하고 보니 이젠 해단식이 다가오고 있다.

처음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벌써 2012년 마지막 달인 12월이다. 이제 겨울 수월해져 가는데... 아~ 아쉬움이 좀 생긴다. 개인 사정으로 과제를 못 했던 날도 있었지만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나 자신이 좀 기특하기도 하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견학도 하고 잠도 자고 밥을 먹으면서 지냈던 추억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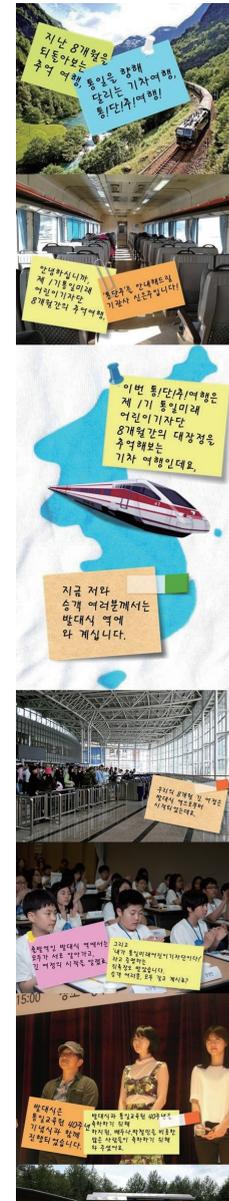
그리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생긴 내 생각의 변화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북한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나는 항상 북한은 무서운 곳, 나쁜 사람들이 사는 곳, 북한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과 통일을 하면 남한이 손해라는 생각에 '통일을 꼭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북한을 돕고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과제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조사하면서 북한과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못 가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파왔다. 또 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졌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 경제력으로 작지만 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초등학교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하면서 생긴 생각과 알게 된 것들을 소중한 간직하고 나처럼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제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게 정말 좋은 추억과 열심히 하면 꼭 얻는 것이 있을 거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정용택(파주 문산초등학교 5학년)

통일기차여행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신은주(부산 을숙도초등학교 6학년)

통일부 기자단이 내게 준 것들

오늘은 수요일 14차 과제가 뜨는 날이다. 이번 과제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통일부 기자단 추억여행이다. 이 주제는 언젠가는 나오겠지 라며 예상해봤었다. 하지만 막상 닥쳐보니 약간 감정이 복잡해졌다. ‘와, 벌써 8개월이나? 추억…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야?’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기자단을 한 8개월은 내게 준 것이 엄청 많다. 그리고 어서 글로 표현하고 싶었다. 그 8개월이 내게 준 것들은 너무나 값지다.

5월 1일 발대식 현장!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참여한 것 같다. 나는 대외적인 행사를 참여해보지 않아서 잘 못할까 봐 걱정하며 서울에 갔던 것이 엇그제 같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피식 웃음이 난다. 그리고 옆의 사진은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인 현주와 수진이다. 다른 기자들은 어색해하던 그때 우리 셋은 버스 뒤에서 엄청 조잘조잘 잘도 떠들며 손잡고 다녔다.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던 발대식이 끝나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기자 활동을 시작했다.



1,2학기 동안에 2주에 한 번씩 과제를 쓰는 것은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줬다. 솔직히 2주에 한 번씩 글을 잘 써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약간 부담이 되었다. 그래도 여러 과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동영상 편집도 해봤고, 내 글쓰기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 솔직히 처음에는 엄마가 고쳐주셨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는 거의 손을 안 대시고 읽기만 하신다. 그리고 나의 단점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그리고 과제할 때마다 오는 피드백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나를 때로는 기쁘게 해줬고, 때로는 고민을 안겨주었다. 글을 쓰는 법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베스트 기사, 기사가 되고 또 내 글을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이 무척 신기하고 좋기도 했다. 어느 날은 친구가 네이버에 내 이름을 치면 내 글과 내 얼굴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진짜 나온다니

정말 좋았다. 비록 때로는 가족행사가 있어서 힘들기는 했지만 내가 성장한 모습과 결과물들을 보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찾아왔다. 바로 통일미래 힐링캠프였다. 그 캠프를 하기 전부터 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8월 2일에 서울로 향했다. 엄마와 동행하지 않은 행사여서 약간 주눅 들기는 했지만 많은 기자들이 나를 알고 있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어린이 기자단끼리 새벽까지 이야기하며 많이 친해졌다. 나는 조벼리, 신은주, 유정민, 강현주 등과 친해졌고, 전국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듣는 듯했다. 그리고 판문점에 견학 다녀온 것도, 강의를 들은 것도 내게 참 좋은 경험이었다. 그렇게 두 번째 만남도 내게 참 뜻깊은 경험이었다.

과제를 2주에 한 번씩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수행해갔다. 이렇게 통일과 북한에 대한 과제를 20개 정도 수행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정말 관심이 많아졌다. 학교에서도 그와 관련된 대회는 좋은 성적이었다. TV나 컴퓨터를 보다가도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꼭 보게 되었다. 다양한 지식들을 알게 된 것이 정말 보람차다.

그리고 카톡과 카카오토티로도 몇몇 기자들과 더 친해졌다. 기자단이 끝나도 안부 인사 정도는 하고 싶은 친구들이다. 그리고 어느 날 3차 권역별 모임이 다가왔다. 3차 권역별 모임에서는 탈북자와 함께하는 가을소풍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그 모임에서는 북한에서 넘어온 언니들을 만났고 전화번호도 알았다. 아직 안부 인사 같은 건 못 했지만 곧 할 것이다. 꼭!

이렇게 내가 8개월 동안 얻은 건 너무나도 값진 것 같다. 첫 번째로 친구들을 얻었고, 두 번째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 실력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북한, 통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네 번째로 이 기자단 활동 자체로 내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위상이 설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6학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경험과 추억들이 생겼다. 비록 통일부 기자단을 중학생이 되어 내년에는 못하지만, 3월의 2기 발대식과 1기 해단식까지는 시간도 많으니까 정말 열심히 마지막 스포트를 내며 후회 없이 기자단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김정원 선생님, 윤정선 선생님 등 모든 운영진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기 통일부 기자단 파이팅~! 어린이 기자님들! 올해는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재밌는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 우리 기자단 활동 끝나도 연락하면서 좋은 친구로 만나자! 이렇게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나중에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꼭 한 번 뭉치자!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허인서(대전 송강초등학교 6학년)

내가 부르는 통일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통일 노래이었다. 또한 통일에 대해서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통일부 어린이 기자가 되어 발대식에 참가해서

‘서울에서 평양까지’와 ‘터’, 그리고 ‘통일송’을 알게 되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라는 노래의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 해외 여러 나라도 가고 달나라까지도 가는데 평양까지는 갈 수 없다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웠다.

그 다음으로 들은 노래 ‘터’는 발대식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린 그런 노래다. 흥겨운데도 통일이 되어 5000년 넘는 이 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긴 노래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송’은 <슈퍼스타 K> 출신 가수 김지수가 직접 기타를 치며 불러주었는데 활기차며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노래 가사라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나도 처음 들었지만 내 주변 친구들도 거의 모르고 있어 좀 안타깝기도

하다. 나는 휴대전화로 녹음한 이 노래를 동생들에게 가끔 들려주었고 우리는 같이 ‘통일송’을 즐겨 부른다. 노래처럼 정말 행복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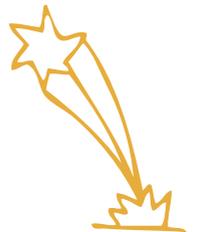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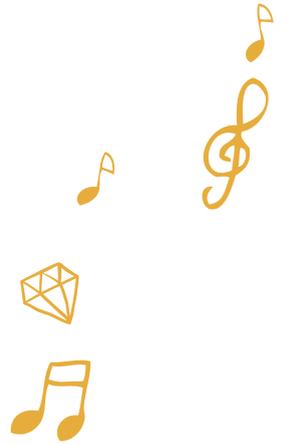
통일부 과제를 매번 잘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과제를 해가면서 통일에 대해, 우리나라 분단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향아리는 새롭게 알게 된 것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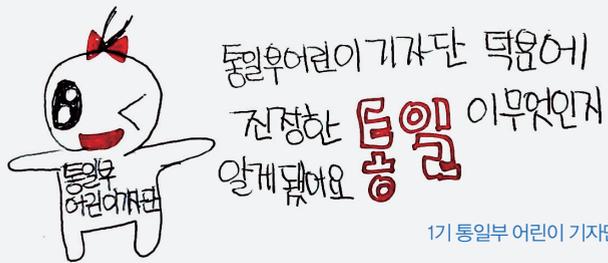
어느 날 기자단 블로그를 보다가 북한 노래를 듣게 되었다.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는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통일 관련 노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통일이 되어 남한과 북한이 서로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말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한다. 3차 권역별 모임에서 한겨레중고등학교 언니가 이 노래를 들려주었다. 북한 노래를 북한에서 살던 언니가 불러주니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았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가 되어 통일 노래를 새롭게 더 알게 되었고 부르게 되었다. 노래를 부르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이 재미있어서 무엇보다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새로운 소망이 하나 생겼다. 통일에 대한 바람과 통일이 되었을 때의 기쁨 등이 담긴 노래를 직접 지어 불러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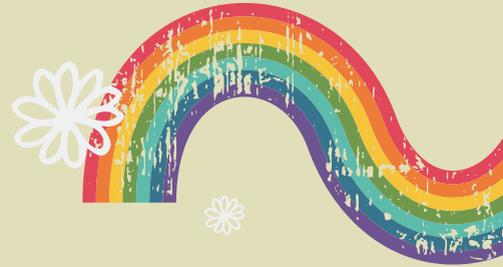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황재연(대전 가오초등학교 5학년)





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한나(충북 수봉초등학교 6학년)

Part. 4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세상에 알려지다

지난 8개월 동안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활동들이 블로그,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소개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모습들.

네이버-검색어 상위 노출

NAVER 통일 검색

블로그 1-10 / 3,096건

'코리아' 두번째 탁구단원팀 구성을 기원합니다. 2012.06.25
비록 영화는 큰 흥행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1991년도 남북탁구단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기적같은 우승을 차지하고 작은 통일을 이루어 낸 가슴울퉁한 이야기들...
blog.krhana.org/38

[KRA 서울경마공원] 남북최초 탁구단원팀... 2012.04.24
[KRA 서울경마공원] 남북최초 탁구단원팀 현정화,리분화 이야기! 영화 '코리아'의 주역... 코리아 팀 출연 당시 자칭, 조연 중에 가장 잘생겼다는 배우 박철민 유쾌한...
blog.naver.com/baesang2/156242373

1991년 최초 남북 탁구단원팀 경기 코리아... 2012.04.03
남북 단원팀으로서 우승한 그날의 감동을 영화로 다시 재현했다고 한다! 탁구 여왕 현정화 역에는 최근 더빙 두하츠의 북한 여자교관으로 활약중인 송무로 대표...
blog.naver.com/140157729331

조금은 다른 북한의 방향, 북한어린이들은 밝합... 2시간전
A 어린이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방향에 대한 공감을 보내주셨네요. 우리 어린이기자단 여러분들 모두가, 아니 학생이라면 누구나 송골마 기다리고...
kidnews.unikorea.go.kr/10150864085

대회의 기적, 남북 탁구 단원팀 이야기 3시간전
1991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상의를 거쳐서, 분단 된 뒤 처음으로 국제 대회에 남북 선수들이 함께하는 '남북 단원팀'으로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kidnews.unikorea.go.kr/10152540299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원팀... 6일전
남북탁구단원팀 실무위원회...
blog.krhana.org/10153529543

통일교육 특행기적! 통일독일을 통해서 바라본 한반도의 미래! 4시간전
(통일교육 특행기적) 통일독일을 통해서 바라본 한반도의 미래 통일부어린이기자단 어린이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은 통일이...
kidnews.unikorea.go.kr/10153613688

신속성 있는 통일비용! 물바라에게 이해하기! 6시간전
[통일부] 통일안화 ~ 통일비용의 신속성 통일에 드는 비용인 통일비용!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통일비용에 대해서 계속 물어 왔어요. (통일안화 ~ 순동일비용 송동일비용)...
kidnews.unikorea.go.kr/10152721040

시간여행! 미래의 통일한국을 미리 만나세요! 2시간전
[통일부] 통일안화 ~ 미래의 통일한국을 방문하다 우리 어린이기자단 여러분은 시간들... 이 만화에 나오는 첫 번째 통일한국의 특징은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예요. 아대...
kidnews.unikorea.go.kr/10150804456

다음뷰-검색어 상위 노출

Daum view

view 홈 MY view 소셜이슈 베스트 라이프 문화/연예 IT/과학 스포츠 경제 시사

통일부어린이기자 [관리](#)

통일&유니와 함께하는 통일부어린이기자단 공식블로그
http://kidnews.unikorea.go.kr

전체 글수 141 개 | 베스트글수 0 개 | 전체랭킹 8002 위 | 채널랭킹 교육 235 위

통일독일을 통해서 바라본 한반도의 미래! 12:12:07 11:34
1 **대한민국이 이룩한 빛나는 발전, 한강의 기적!** 12:12:07 11:34
2 **북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12:12:07 10:48
3 **북한에 있는 동무들에게** 12:12:04 11:04
1 **북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12:12:04 10:10
2 **북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12:12:04 10:10
3 **새롭게 떠오르는 세계인의 관광지! 통일 한반도!** 12:12:03 14:35
2 **해속 누나에게** 12:12:03 14:09
1 **언젠가는 만나게 될 탈북 친구들에게** 12:11:30 11:36
1 **북한학교도 속속 열리고 있어요!** 12:12:06 13:42
2 **북한 학교에도 어린이회나 학생회가 있나요?** 12:12:06 13:42
1 **그날을 기원하며 북한친구들에게** 12:12:06 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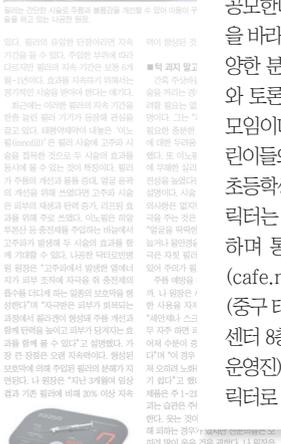
조선일보 행복플러스 6월 19일자

조선일보 행복플러스 6월 19일자
 행복플러스 6월 19일자
 행복플러스 6월 19일자

세상에 스코틀랜드 사탕을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스코틀랜드 사탕을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스코틀랜드 사탕을 만들 수 있는...



■ 물이든 수분, 달걀 주황색 알맹이든...
 물이든 수분, 달걀 주황색 알맹이든...
 물이든 수분, 달걀 주황색 알맹이든...



아침 스트레칭 후 두유 한잔이면 '몸짱'

복을 단계를 활동한 '유니 디자인'은...
 복을 단계를 활동한 '유니 디자인'은...
 복을 단계를 활동한 '유니 디자인'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마스코트 '유니' 캐릭터 디자인 공모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6월 20일~7월 10일 기자단 마스코트 '유니' 캐릭터를 공모한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 다양한 현장에 직접 체험하고 리포트와 토론을 통해 집결의 중요성을 깨닫는 모임이다. 이번 공모전은 통일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으며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캐릭터는 본인이 직접 창작한 그림이어야 하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커뮤니티(cafe.naver.com/jrunikorea)나 우편(중구 태평로1가 62-4 조선미디어 광화문센터 8층 미디어사업본부 어린이 기자단 운영진)을 통해 응모 가능하다. '유니' 캐릭터로 선정된 최우수작 1편에는 문화상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마스코트 '통이' 품권 10만원, 가족외식상품권, 통일부 어린이 기자체험학교 참가 기회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수상작은 7월 20일 어린이 기자단 커뮤니티, 기자단 8월호 소식지, 공식 블로그(kidnews.un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리브트리플 뉴질랜드 유학 프로그램 운영

유학 업체 올리브트리플이 애들용...
 유학 업체 올리브트리플이 애들용...
 유학 업체 올리브트리플이 애들용...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마스코트 '유니' 캐릭터 디자인 공모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6월 20일~7월 10일 기자단 마스코트 '유니' 캐릭터를 공모한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 다양한 현장에 직접 체험하고 리포트와 토론을 통해 집결의 중요성을 깨닫는 모임이다. 이번 공모전은 통일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으며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캐릭터는 본인이 직접 창작한 그림이어야 하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커뮤니티(cafe.naver.com/jrunikorea)나 우편(중구 태평로1가 62-4 조선미디어 광화문센터 8층 미디어사업본부 어린이 기자단 운영진)을 통해 응모 가능하다. '유니' 캐릭터로 선정된 최우수작 1편에는 문화상

차음, 뷰티 시크릿 케커지 운영

차음, 뷰티 시크릿 케커지 운영...
 차음, 뷰티 시크릿 케커지 운영...
 차음, 뷰티 시크릿 케커지 운영...

푸른친구들, 혈액 맡게 해주는 '나도 효소사' 출시

푸른친구들, 혈액 맡게 해주는 '나도 효소사' 출시...
 푸른친구들, 혈액 맡게 해주는 '나도 효소사' 출시...
 푸른친구들, 혈액 맡게 해주는 '나도 효소사' 출시...

통일한국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행동과 협력 이끌어 낼 통일교육 필요’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제주에 멋대! 통일미래 현장 특파원

제주에 멋대! 통일미래 현장 특파원...
 제주에 멋대! 통일미래 현장 특파원...
 제주에 멋대! 통일미래 현장 특파원...

통일 미래의 희망은 '우리'에 있다

통일 미래의 희망은 '우리'에 있다...
 통일 미래의 희망은 '우리'에 있다...
 통일 미래의 희망은 '우리'에 있다...

‘살랑 언니 텍소리는 정말 피교리 집어’

‘살랑 언니 텍소리는 정말 피교리 집어’...
 ‘살랑 언니 텍소리는 정말 피교리 집어’...
 ‘살랑 언니 텍소리는 정말 피교리 집어’...

통일 진병에 새긴 '우리는 하나'

통일 진병에 새긴 '우리는 하나'...
 통일 진병에 새긴 '우리는 하나'...
 통일 진병에 새긴 '우리는 하나'...

‘민간소기업이 나무야 어둠이 어둠에 나무야’

‘민간소기업이 나무야 어둠이 어둠에 나무야’...
 ‘민간소기업이 나무야 어둠이 어둠에 나무야’...
 ‘민간소기업이 나무야 어둠이 어둠에 나무야’...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제1기 통일미래 어린이 기자단

제1기 통일미래 어린이 기자단...
 제1기 통일미래 어린이 기자단...
 제1기 통일미래 어린이 기자단...

제1기 통일미래 어린이 기자단

제1기 통일미래 어린이 기자단...
 제1기 통일미래 어린이 기자단...
 제1기 통일미래 어린이 기자단...

제1기 통일미래 어린이 기자단

제1기 통일미래 어린이 기자단...
 제1기 통일미래 어린이 기자단...
 제1기 통일미래 어린이 기자단...

Part. 5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100인의 각오



김규혁 서울 창일초 6학년
“진정한 평화, 통일의 숭고한 의미를 지키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박준형 서울 창일초 6학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첫 발걸음, 무척 떨립니다.”



안혜인 서울 동일초 5학년
“미소 짓는 호랑이, 통일을 꿈꾸는 호랑이 기자가 되겠습니다.”



유정민 서울 동일초 6학년
“통일에 대한 의지,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해진 서울 광남초 6학년
“통일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신현진 서울 광남초 5학년
“저는 '통일 카메라'입니다. 통일에 관한 모든 것을 담겠습니다.”



하지후 서울 공릉초 5학년
“통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은지 서울 공릉초 6학년
“전 세계에 우리나라 통일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신용혁 파주 두일초 5학년
“행복통일로 전진! 모두가 행복하고 친근한 그날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병재 파주 두일초 6학년
“한민족의 일원으로, 통일부 어린이 기자로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방주호 하남 삼리초 5학년
“우리는 한마음 한민족, 통일부 기자단원이 자랑스롭습니다.”



박소은 하남 삼리초 6학년
“통일 리더 기자로서 당찬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빈 안성 삼죽초 5학년
“푸른빛 통일 열차를 이끄는 어린이 기자단이 되겠습니다.”



우혜진 안성 삼죽초 6학년
“저도 통일의 밑바탕이 되어 가까운 미래에 통일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김선우 동두천 탐동초 5학년
“친구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을 전달하겠습니다.”



안희선 동두천 탐동초 6학년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 모두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탁 파주 문신초 5학년
“미래의 통일된 조국을 이끌어 갈 주역이 되겠습니다.”



고영수 파주 문신초 6학년
“남과 북은 미래와 세계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아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정민경 광명 하인남초 5학년
“작은 힘이나마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예원 광명 하인남초 6학년
“통일을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나경 인천 장도초 6학년
“행복한 통일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김하진 인천 부원초 5학년
“서로 소통하고,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서현 인천 소래초 6학년
“남북의 끊어진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 립 인천 하점초 6학년
“통일! 모두가 소망하면 그 꿈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신지은 인천 연화초 6학년
“평화통일을 일 깨우는 힘,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인 제가 열겠습니다.”



배희정 인천 인주초 6학년
“작은 일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날개짓 하겠습니다.”



조기환 인천 마정초 6학년
“미래의 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통일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성민 인천 학산초 5학년
“통일을 위해 통통 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기자단이 되겠습니다.”



정 건 인천 학산초 6학년
“통일을 이끄는 일명 '통일 이끔이'로 변신하겠습니다.”



고영균 제주 우도초 6학년
“통일 미래를 위해 값진 경험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상민 제주 남광초 6학년
“진심어린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수 제주 남광초 6학년
“통일을 꿈꾸는 '꿈나무'가 되겠습니다.”



서고은 서귀포 동홍초 6학년
“통일의 꿈을 신고, 내 마음도 신고.”



오상우 서귀포 서귀북초 5학년
“통일 바라기의 소식통(통·바·소)이 되겠습니다.”



김효은 춘천 동내초 5학년
“남과 북을 누비는 기자가 되어 평화가 아름답게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영 철원 동송초 5학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이제 철마는 우리와 함께 달릴 시간입니다.”



박재형 화천 화천초 5학년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심장이 뛰니다.”



김다희 양구 방산초 5학년
“남과 북을 잇는 꿈송이가 되겠습니다.”



김아현 인제 기린초 5학년
“하나되는 날개짓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를 보듬어 주고 싶습니다.”



임재원 충북 슬밭초 6학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생각이 아닌 현실로! 파이팅.”



홍주혜 충북 주덕초 6학년
“하나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단이 되겠습니다.”



홍지연 충북 경산초 5학년
“미래를 여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홍지후 충북 서촌초 6학년
“한걸음씩 가까워지는 통일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조유정 충북 남산초 6학년
“남북 어린이 모두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한하나 충북 수봉초 6학년
“행복한 통일 기자단의 첫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김다영 충북 산남초 6학년
“미래 한국을 만드는 기자단, 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나연 충북 슬밭초 6학년
“남북의 같은 꿈, 같은 미래를 위해 기자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유서 충북 슬밭초 5학년
“통일 비둘기가 되겠습니다. 평화로운 소식을 알리길 기대합니다.”



임수진 충남 대평초 6학년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 소원은 현실로 이루어 질 것이라 믿습니다.”



전아영 충남 가남초 6학년
“미래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강현주 천안 수곡초 6학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겠습니다.”



김민지 충남 대관초 5학년
“하나된 우리 겨레, 하나로 묶는 그날을 위해 달려겠습니다.”



정동해 충남 온양초 6학년
“앞으로 통일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허인서 대전 송강초 6학년
“통일을 기다리며, 진심을 담아 소식을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최다은 대전 성룡초 5학년
“통일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김민정 대전 느리울초 6학년
“통일을 사랑하는 어린이 기자단이 되겠습니다.”



류하빈 대전 글꽃초 5학년
“미래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가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이수민 대전 목양초 5학년
“기사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윤상필 대전 용전초 6학년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황재연 대전 가오초 5학년
“발대식에서 들었던 노래 <터>처럼 우리의 터를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박현정 광주 송정서초 6학년
“같은 민족, 하나된 마음으로 기사를 쓰겠습니다.”



김한솔 광주 송정서초 6학년
“3,8선이 우리를 갈라놓더라도 하나된 마음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김예지 광주 송정서초 6학년
“서로 도우며 통일의 문에 한걸음씩 가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서 전주 서문초 5학년
“통통 튀는 의견들을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조버리 곡성 중앙초 6학년
“통일의 꿈과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선 전남 응지초 6학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자단으로서 현장을 누비겠습니다.”



김승수 전남 토지초 6학년
“남과 북이 하나되어 통일을 누리는 그날까지.”



박연진 전남 해남동초 6학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신은주 부산 을숙도초 6학년
“사명감을 갖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이우영 부산 개원초 6학년
“전국을 누비는 기자, 남과 북을 누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김형서 부산 금명초 6학년
“꿈을 향한 통일 미래는 가깝습니다. 온 집중 다해 열정을 쏟겠습니다.”



빈동호 부산 명호초 6학년
“우·남·통(우리에게 남은 하나의 임무, 통일)”



백지수 부산 주왕초 5학년
“학교를 대표해 통일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 부산 화잠초 5학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통일을 먼저 이끌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혜선 부산 동현초 6학년
“통일 알리미로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 림 부산 남천초 6학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제 세상 밖으로 끌어내겠습니다.”



사예림 대구 시지초 5학년
“통일된 조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김민준 대구 옥수초 5학년
“저는 리틀 통일기자입니다. 통일을 위해 더 큰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배승수 대구 달성초 6학년
“통일을 바라는 통일바라기, 진실된 소망을 담아 기사를 쓰겠습니다.”



류고림 대구 서부초 6학년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 꿈동이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지민 대구 남송초 6학년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기자단이 되겠습니다.”



장성민 대구 월서초 5학년
“기자단이 만드는 통일, 한반도 통일 멀지 않았습니다.”



김규리 대구 매곡초 5학년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자단이 되겠습니다.”



주희연 울산 은양초 6학년
“통일의 꿈을 가득 싣고 세계에 전달하겠습니다.”



김난영 울산 격동초 6학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1기, 한발 한발 열심히 댕졌습니다.”



문예진 울산 서부초 6학년
“상생기자단 선배님들처럼 훌륭한 통일부 어린이 기자가 되겠습니다.”



황현민 울산 함월초 5학년
“처음 만난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현석 울산 삼동초 5학년
“기자로 활동하면서 꼭 통일된 세상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최승미 울산 월평초 5학년
“앞으로 기자단 생활을 열심히 해 통일의 뜻을 펼치겠습니다.”



최예림 울산 월평초 6학년
“통일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예나 포항 원동초 6학년
“좋은 만남, 멋진 경험, 통일부 어린이 기자들의 특권입니다.”



김민주 경주 양북초 6학년
“온 세상의 리더가 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전 솔 김천 동부초 6학년
“내 주변의 작은 실천을 통해 통일을 꿈꾸고 멋지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황현동 안동 서부초 6학년
“이제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 하겠습니다.”



김수현 구미 형곡초 5학년
“우리 세대에는 책임을 갖고 평화통일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강지은 창원 웅남초 6학년
“통일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태준 밀양 수신초 6학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통일부 어린이 기자로서 행복을 꿈꾸고 싶습니다.”



허준우 밀양 수신초 6학년
“통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발맞춰 힘차게 뛰어봅시다.”



김나운 고성 고성초 6학년
“행복한 꿈과 미래, 우리의 손끝에 달려있습니다.”



이새벌 고성 고성초 6학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1기, 함께 하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파이팅!”



